

광년이의 미친년 되기



언제나 앞서가는 여성은
미친년이라 불렸다

자치규약 자료집 두번째 이야기



광년

노아

무식하고 무지하고
단순한,
착한 가목장이
어떤 정인가를
몸소 보여주는
어리버리 신일생.

비꾸

히지!
'나 카루자' 이라고
이마에 써붙인,
앙으로 광년이와
계속 싸울것이 확실시되는
불쌍한 신일생.

정운의 몸을 품고
대학에 입학한
어이쁜 신일생,
빅나는 여성(光女)에서
바야흐로
미친년(狂女)으로
변신중!

자치규약 자료집 두번째 이야기



내가 과격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민감한 건 아닐까,
나 혼자만 입 다물면 모두 편해질텐데,
즐거운 분위기, 함께 즐길 수 있을텐데.

너랑 있으면 피곤해,
너는 너무 감정적이다,
너의 불쾌함을 나에게 설명해와,
웃자고 하는 이야기, 함께 즐길 수 있잖아.

돌고 도는 햇바퀴 속에서,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왜 나는 늘 찜찜함을 안고 살아야 하는 걸까,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 일들, 나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텐데.

나는 아직 잘 몰라,
나는 나를 설명할 수 없어,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 논리에 나를 맞출 수 없어.

하지만...
나는 지금이 편하지 않아,
지금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니,
이제 나에게 등을 던지길,
너희들의 분위기를 맞추지 못한 죄로,
너희들의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죄로,
나의 불쾌함을 뭉뚱하게 드러낸 죄로.

언제나,
앞서가는 여성은 미친년 취급을 받아왔고,
나도 이미 한치도 틀리지 않으니.

하지만,
정말이기 신기하게도,
우리 주변엔 이렇게 미친년들이 많으니,
어쩌면 나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불쾌함을 입열어 말할 용기와,
내 주변 한줌의 미친년들뿐.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공통제 *Beyona*

광년이의 미친년 되기

2001. 2



자치규약 자료집 두번째 이야기

The truth is out there
The truth is out there
The truth is out there

The truth is out there

98년에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 에서는 '자치규약 자료집'을 사회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자료집을 up-grade 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렸었지요. 비록 99년에는 Beyond의 내부 사정상 자료집이 다시 발간되지 않았지만 늦게라도 이렇게 '자치규약,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98년에 자료집을 낸 후 저희는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지요. 하지만 반면에 너무 과격하다, 너무 민감한 것 아니냐, 너무 쪼잔한것까지 다 규약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의견을 주신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는 정말이지 신기하고 오묘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집에 대해 비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와 그 논리가 한치의 차름도 없이 똑같았다는 점이지요. 평상시에도 X-file을 신봉

The truth is out there
The truth is out there
The truth is out there

하는 저희들은 이 이면에는 분명히 어떤 음모가 있음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요.

이 자치규약 두 번째 이야기는 '광년'이라는 대학 초년생의 대학 생활을 다룬 것입니다. 한마디 사족으로 덧붙이자면, 이 자료집에 나와있는 모든 에피소드들은 다 실제 사례들을 저희가 재구성한 것입니다. 즉, 언제 어디서건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 정을 염두에 두고 광년의 생활을 따라가시다 보면 여러분도 분명히 저희가 발견한 그 음모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부탁드리건데, 그 음모를 발견하신 후에는 꼭 그 이면의 진실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듯이, 진실은 저 너머에 있는 것이니까요.

광년이의 미친년 되기

자치규약 자료집 두번째 이야기

The truth is out there 2

Episode 1.

신입생 O.T 6

Episode 2.

새터 11

X-file 1 : 품리지 않는 의문 - 왜 그리 좋아하나 16

Episode 3.

강의실 17

1. 2001. 4. 14

2. 적거리장에 붙어있는 부치지 못한 편지

광고 하나

우리 함께 하자구요 23

Theme Story

24 화장에 관한 4가지 이야기

내 나이 열일곱.....나는 화장을 하고 싶다.
내 나이 스물.....사람들은 나에게 화장을 하라 한다.
내 나이 스물 둘.....나의 화장은 인정받지 못한다.
내 나이 스물 일곱.....화장에서 자유롭고 싶다.

32 Episode 4.

담배

39 X-file 2 : 저 너머 있는 진실 -임신과 출산

40 Episode 5.

성적농담

1. 채팅사건
2. 적거리장 논쟁

52 Episode 6.

길거리

#1. 거리에서
#2. 2001. 11. 6
#3.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

58 스토킹에 대한 상식 몇가지

61 광고 둘
새내기 여성학 학교가 열린대요

62 편집후기

신입생 O.T

2001. 2. 15

과학관 앞. 사람이 많다. 파란색 반 깃발을 든 사람, 배정표에서 자신의 반을 찾는 사람.

우리 반 깃발 아래에는 벌써 여럿의 친구들이 모여있다.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강의실로 갔다. 강의실에서는 선배들의 소개와 그리고 우리들 각자의 소개. 더불어 장기자랑이 있었다. 나는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는데... 걱정이다. 우와~ 엄청나게 앉아있던 한 친구... 사회자 오빠를 파트너 삼아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춘다. 허억... 야하다. --: 역시... 대학에 오니 재주 많고 당당한 친구들이 많구나. 장기가 없다니 FM을 하란다. 선배들이 먼저 시범을 보인다. 흠하다. 저런걸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만 몇몇은 자진해서, 또 몇몇은 강제로 한다. 정말 싫다. 남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란... 남자애들은 그래도 낫다. 당황하는 여자애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에에~ 왜 내숭이야~~ 이번판은 나가립니다아~ 다음판을 기대하세요~ 다음판도 나가려면 소주 한병 원샷입니다.~~" 할 수 없다. 다시

FM

새 학기에는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우렁차게 외치는 소위 FMfield manual을 하는 신입생들의 모습을 상상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FM은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군대 문화가 대학에서 제대로 자리잡은 한 사례이지요.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여간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명하복의 군대식 문화, 그에 대한 환상은 임성을 모두 피곤하게 만듭니다. 선배의 권위나 집단적인 분위기를 내세워 후배들에게 FM을 강요하는 것은 대학 문화에 익숙지 않은 새 학기에 대한 강요의 폭력입니다.

한다. 찢어지는 목소리... 가슴이 두근거린다.

강의실에서 자기 소개와 반대표 오빠의 환영사가 대충 끝나고 학교 탐방을 했다. 이른바 학교의 명소라는 곳을 돌아다니며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선배들과 인사도 하고... 그 후

에는 강당에 모여 OX같은 간단한 게임과 행사를 했다. 후아~ 이제 오늘의 일정이 모두 끝났나보다. 저녁에는 뒤풀이가 있다. 호호호... 드디어 기대했던 뒤풀이, 말로만 들던 대학생들의 놀이문화가 궁금하다.

연회관 앞에서 드디어 말로만 들던 아카라카를 외치고 다같이 깃발을 앞세워 신촌에 내려갔다. 학교 여기저기서 펼쳐지는 깃발들... 미리 선배들이 정해둔 고기집에 들어갔다. 고기집은 냄새, 시끌벅적한 분위기... 한나절 동안 부지런히 사귀 친구들과 용기 좋지 않았다. 남자애들은 저쪽에, 여자애들은 이쪽에... 근데... 이내 떨어져 버렸다. 남여 비율과 선배배 비율을 섞어야 한다면서... 떨어지기 싫어하는 우리들에게 내외화나고 야단이다. 모... 할수 없지. 근데... 난 여고를 나와서 그런지 많이 어색하다. 엇! 술이다. 걱정이다. 소주는 처음인데... 그치만 모... 이제 대학생이니 소주쯤이야. ^^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과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하고 술을 받는다. 반



원샷

대학에서의 술자리는 많은 경우 공동체 의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술자리를 지배하는 강요와 강제의 분위기는 그 속의 친목을 오히려 해칠 수도 있습니다. 술자리에서의 강요의 분위기는 꼭 물리적 심역행사나 눈에 보이는 강제가 없더라도 (위계 질서 등등의 것에 의해) 암묵적으로, 심리적으로 형성되어 우리를 압박할 수 있지요. 원 샷이야 능력 되고 기분 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자리에서의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분위기는 다른 이의 응수받까지 통치하려고 합니다. 꼭 술을 마시고 취해야 기분이 나는 것도 아닌데 신나는(?)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실은 술을 한꺼번에 돌아가게 하는 것은 충분히 폭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과 술 마시기에 있어 여성에 대한 이중기준

여성은 술을 잘 마시면 '좀 노는 여자', '무서운 여자', '보통이 아닌 여자'가 되고, 반대로 술을 못

대표 오빠의 고레고레 환영사와 함께 건배~ 첫 잔은 원샷이란다. 쿠에엑~ 쓰다. 생각보다 맛이 없다. 앗~!! 한 여자선배가 담배를 피운다. 대학에 오면 여자들도 담배를 피운다더니... 정말인가보다. 담배 피우는 여자 선배라... 무섭다. 중학교 때도 담배 피우는 친구들이 몇 있었지만 정말 날라리 장패들이었는데... 저 선배는 언제부터 담배를 피웠을까? 흠...난 절대 담배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벌써 9시. 꽤 늦었다. 부모님께 꾸중 듣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런데 아무도 일어설 생각을 안 한다. 어쩔 수 없다. 아쉽지만 먼저 인사를 하고 나온다. 어? 그런데 지하철역을 못 찾겠다. 거리에는 사방 술 취한 사람들이고, 뼈끼들까지... 무섭다. 간신히 물어 물어 지하철역을 찾았다. 지하철에도 온통 술취한 사람들이다. 밤겨리는... 너무 무섭다. 11시가 다 되어서 집에 왔다. 다행히 부모님께서는 별 말씀 안 하신다. 이제 대학생이라고 어느 정도 눈감아 주시나보다. 푸헛... 신난다.

둘째날. 오늘은 용원 연습이 있는 날이다. 먼저 어제 그 강의실에 가서 우리 반 친구들을 만났다. 어제 내가 집에 가고 난 후에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나보다. 웬~ 그럴줄 알았으면 나도 좀더 있는건데... 아쉽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가 체육관에 갔다. 용원연습이라. 열심히 배워서 연고전 때 재미있게 놀아야지. 선배들의 연고전 얘기를 들으면 벌써부터 설레인다. 우와~ 용원도 넘 어

마시면 내숭대는 여자가 되고 맙니다. 또 게임에 열중해서 잘 하면 역시 나서는 여자. 우서운 여자가 되고 잘 못하고 까려 하면 내숭대는 여자. 분위기 좋은 여자가 됩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여성에 대해 성녀이길 기대하거나 청녀로 낙인찍는 이중 잣대가 술자리 게임에 그대로 적용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술 잘 마시는 여성은 여성이라면 당연히 약해야 하고 그래서 술도 못 마시는 청상녀도 그 상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놀라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좀 놀았나' 본데... 무섭다. 아 소리 안 들으면 다행이고 최소한 못 사람들이 내지르는 놀라움의 탄성 정도는 들어줘야 합니다. 여성이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평가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당히 술을 마시면서도 조소한 여성의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게 많이 마시는 압도적 잘



러 가지라 헛갈린다. 그치만 재밌다. 특히 마초팬이라는 용원은 동작도 비교적 쉽고 노래도 재밌다. 특히 그 '어이! 어이! 어이



어이어어!! 하면서 배를 핑기는 부분이 무지 신난다. 열심히 따라했다. 오늘도 이리저리한 일들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또다시 뒷풀이가 있다.

어제와는 또 다른 곳이다. 조금 어두컴컴한. 우리 테이블... 어제보다는 남자애들이 더 많다. 자기 소개를 하고나서 술이 몇번 돌고, 근데... 아무래도 어색하다. 그래서인지 한 선배가 게임을 하잔다. 벌칙은 소주 원샷하기. 그 쓴 소주를 원샷하다니... 너무 끔찍하다. 정신을 바짝 차렸다. 3,6,9,3,6,9... 다행히 무사히 넘어갔다. 근데... 옆의 한 여자친구는 얼굴이 벌써 빨개졌다. 저런저런 이번에도 또 걸렸다. 어쩔줄 몰라하는 그 애. 원샷~원샷~을 연발하는 사람들. 보다가 안되겠는지 한 선배가 흑기사를 부른다. 흑기사? 대신 벌칙을 받고 여자애한테 소원을 말하는 거라나? 아까부터 이 친구를 심상치 않게 쳐다보던 한 남자가 흑기사를 자청했다. 호호... 역시 이쁘고 볼 일이다. 하긴... 아까 남자 선배들이 얘기하길... 이번 새내기들은 작년보다 훨씬 예쁘다면서, 작년엔 하도 못생겨서 다 스타 크래프트에 나오는 저그인 줄 알았나? 모... 예쁘다고 칭찬하는 거라 그냥 웃어넘기긴 했지만, 헛... 거울이나 한번 보라지. 그 얼굴로 남 얘기는 무슨... --: 어쨌든, 흑기사

조청하는 고도의 기술을 연마해야겠죠.

남성들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러하듯이, 여성이 '하기 싫다', '못하겠다' 라고 말하면 그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열심히 하고 솔직히 자신을 드러내면 그런 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이상은 사회적으로 명백히 있는 여성에 대한 허구적 이미지나 터무니없는 평가의 잣대로 그들의 행동을 재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흑기사, 흑장미

원샷을 강요하는 술자리에서 게임의 방식으로 마셔야 할 술(?)을 안 마시거나 참으로 곤란한 일입니다. 이 때 본인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환호에 의해 등장하는 존재가 바로 흑장미/흑기사입니다. 멋지게 나타나서 술잔을 비워주니 어떤 술 못 마시는 이들에게 빈가운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흑기사가 술을 마셔주는 대신에 그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들이 들어줘야 합니다. 이 때문에 흑기사 부르기들 까리게 되기도 하죠. 환호하는 관중들 앞에서 안아주기, 포옹하기 등 요구하는 등등... 흑기사를 부르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주변인물이나 흑기사

를 자청한 그 애는 여자애의 소주를 대신 마셔주더니 노래를 시켰다. 우물쭈물...노래를 못한다며 뻔다. 그러나 이내 터져나오는 사람들의 손뼉과 노래.... "노래를 못하면 시집을 못가요, 아~ 미운사람. 시집을 못가면 재미를 못봐요, 아~ 미운사람~~" 얼굴이 붉어진 그애. 어쩔수 없이 노래를 한다. 으~ 각정이다.

그때, 반대표 오빠가 노래를 한곡 하겠다. 이어지는 환호성과... 희한한 노래. 족장가? "족장님의 정력은 신비하고 놀라워 족장님의 정력은 신비하고 놀라워~" 이런... 화끈... --; 그러더니 반성폭력 내규에 걸린다고 정력을 능력으로 바꿔 부른다. 그거나 그거나... 그리고는 다시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끼리 노는 분위기. 또 게임을 하잔다. 이번에는 아예 술먹는 게임. 더 게임 오브 데쓰? 지목받는 사람은 무조건 마시는 거다. 그 게임 덕에 오늘은 나도 꽤나 마셨다. 땅바닥이 빙빙 돈다. 2차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길 한가운데 둥그렇게 모여 아카라카!! 구석에서는 토하는 친구들도 있다. 원시림도 한다. 원 안에 들어간 사람을 마구 발로 찬다. 아프겠다. 다치면 어쩌려구... 술김이라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인다. 그래도 새로운 경험이다. 대학 때 아니면 이런 짓 언제 해보랏... 이런 차시간이 다 되었다. 나는 오늘도 먼저 술자리를 빠져 나온다. 흠... 나도 웬만큼 술이 올라서인지 오늘은 신촌의 밤거리가 덜 무섭다.

에 의해서 성폭력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섞어 있기

선후배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녀간의 서먹한 분위기를 끌어내기 위해 적당히 섞어 있는 것은 실제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남자가 양말에 여자 두개 술 마시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든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성이 그 자리의 꽃(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특정인을 찍어서 어디 앉기를 강요한다든지 굳이 그 옆에 앉았다고 해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섞어 있기가 그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서로 불편한 자리를 만드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목을 다지고 돈독한 관계 형성의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자리가 불편해 지는 것은 막아야겠죠.

Episode 2.

새터

2001. 2. 28

나를 몰아매던 십 여년의 입시도 끝난 일이고 이제는 대학생이 된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설레었던 나. 너무 큰 기대 때문이었을까? 설레던 기억에 비하면 지금은 무덤덤한 기분이다. 글썽 몇 일간의 새터는 단지 즐거웠다고 말하기엔 어딘가 모르게 답답한 맘이다.

"이번 새터 어땠니? 재밌었어?"

한 선배가 묻는다. 2박 3일.. 새내기 배움터는 짧았다. 벌써 돌아오는 버스안..

"아.. 그냥 재미있었어요.."

대충 그렇게 답했다. 정말 재미있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다. 피곤하다는 생각 밖에... 집에 일찍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던 첫 기회였기 때문인지... 다들 들떠 있었던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너무 무리해서 놀았나보다.

첫째 날은 예상 시각보다 늦게 도착하여 짐정리를 하고 반별모임이 있었다. 교수님 소개와 동아리 소개가 있었고, 반대표가 노래를 불렀다. 또 족장가다. 족장님의 정력은 신비하고 놀랍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무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조금 짜증이 나려고 한다. 족장님



정력이랑 저 사람이랑 뽀 상관이 있길래 뽀날 족장님을 찾을까?

뽀날 술을 먹지 못하게 한 새터 첫째 날이었지만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어디서 가져온 술들이 저렇게 많은 것인지... 압론 술을 마시고 놀다가 잠이 들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좀 더 재미가 있을까 기대를 하며...

둘째 날이다. 뽀 추운 날이었는데 체육대회라고 건물 앞 공터에서 몇 가지 게임을 하게 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반 대항게임으로 '여왕벌'이라고 했다. 처음으로 해본 게임이었는데 (물론 내가 한 것인지 '구경'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대강의 원리는 이렇다. 한 명의 여자가 여왕벌이 되고 나머지 남학생들은 다른 반의 공격으로부터 여왕벌을 보호하는 것이다. 뽀.. 공격이라고 해봐야 뽀싸움이지만.. 우리반 남자애들은 그 추운 날씨에도 신나게 놀아냈지만 여왕벌을 제외한 우리반 여자친구들은 추운 날씨에 오들오들 떨고 있을 뿐이었다. 처음에는 응원도 좀 하긴 했다. '잘해라.. 화이팅' 몇 번 외치다가 친구 몇 명과 슬그머니 들어

와 버렸다. 문제는 이 다음이다. 한참 후 남자애들 몇 명이 불뽀 소리를 하는 것이다. 다른 반은 여자애들이 응원도 잘 해주는데 왜 응원도 안 하고 춥다고 먼저 들어왔냐는 것이다. 협동심, 단합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같은 반이 된 것도 인연인데 잘 지내야 되지 않겠냐는 거다. '뽀..그럼 그 추운 곳에서 파이팅이나 연발하면서 있으란 말야..' 따지고 싶은 맘이 굴뚝 같았지만 그냥 참고 말았다. 웬지 내가 벌일 아닌 일로 따지게 되는 것 같고, 아직 많이 친해지지도 않은 아이들과 분위기가 더 서먹서먹해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밤에는 조별 장기자랑을 했다. 어떤 조에서는 연극을 하었는데 불을 꺼 놓고 어떤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만으로 연기를 하는



것이였다. "오빠! 너무 힘들어" "조금만 참아!" "처음엔 다 그래"와 같은 대사들로 이루어졌던 이 연극은 알고 보니 정문에서부터 연희관까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어떠한 성행위를 암시하는 말로써 나타낸 것이였다. 모두들 기발하다고 즐거워했다. 흐음... 대학에 왔더니 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다. 내가 아직 적응이 안된 것인지... 아직은 같이 즐겁다고 어울리기에겐 무언가 거리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되는 응원과 아카라카... 처음엔 어색했지만 신입생 환영회와 오티 때부터 계속 해왔던 거라 이제는 익숙하게 따라한다. 아무 생각 없이 아카라카~ 따라하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졌다. 선배들에게 물어보았는데.... 뽀.. 아무도 아카라카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한다--;; 그저 선배들은 연고전을 겪어봐야 진정한(?) 연세인으로 태어나는 거라고 하며 열심히 응원이나 하라고 했다... 웅... 선배들은 이제 아카라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하기 시작했다. 참 다양하고 기발하다는 생각이 하면서 따라하기는 했지만 몇 개는 따라할 수도 없었다. 아카라카 색시 버전은 남자 선배들과 남자애들이 마치 색시한 남자를 표현하기보다는 색시한 여자를 흉내내는 것 같아서 느끼(?)하고 거부감이 들었다. 더 심한 것은 아카라카 섹스 버전이였다. 처음엔 그게 뽀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

we can do it!



대학 내 성행 분업

일반적으로 성행분업은 사적인 일은 여성의 것으로 공적인 일은 남성의 것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새터에서 고기를 굽고 청소를 하는 것은 여성이 거의 전담하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이나 힘을 쓰는 일은 거의 남성이 한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말이죠. 이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동아리나 학회의 장은 남성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고정된 성행 분업이 대학 내에서 그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정된 성행분업은 사회적으로 각 개인들에게 강요한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성행 분업 때문에, 여성이 남성의 역할을 하게 될 때 '기 잡혀가 김치'라는 말을 하거나, 반대로 남성이 여성의 역할을 하게 될 때 '기잡혀 갔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공대나 생과 대 남학생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남성의 역할이 여성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일로 평가받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성행 분업에 대해 흔히 지기가 익숙한 일, 지기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이지만, 오히려 번민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단지 성행 분업체계에 의해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정해져 있던 일들이 각자의 남보다 잘하는 일이 되어버려 마치 효율적인 일 느껴질 뿐이지요. 그러므로 모두가 함께 하는 새터에서 고정된 성행 분업 때문에 한쪽 성에 터무니 없는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고보니 성형위시 남성의 허리 운동(?)--: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해 보지 못해서 그런지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웬지 그 곳에 있던 나와 같은 여학생들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하고 싶었다.

본부에서 방송이 흘러 나왔다. “각 조별로 힘 켜 남학생들은 술을 가지러 본부로 보내주세요~” 오늘 밤은 마지막 날인 만큼 술을 많이 먹었다. 평상시에는 집에 일찍 들어가야만 했기에 겪었던 남모른 고민들... 술자리에 마지막까지 남는 아이들끼리 훨씬 친해진 것 같구. 웬지 모르게 난 어쩔 수 없이 소외되는 것 같구... 하지만 집에서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찍 일어서야 하는 것도 모르고 맨날 일찍간다고 뭐라고 하는 선배들과 남자 동기들... 새터에 오니까 이런 걱정 할 필요가 없어서 좋았다. 그런데 벌써 마지막 밤이군--: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고기를 구웠다. 수련회 마지막 날이라고 우리 조 선배들과 고기를 구워먹게 되었는데 몇 점 먹지는 못 했지만 여럿이서 함께 먹고 어울리는 것이 좋았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남자들은 고기가 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고기를 구우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고기를 굽고 있는 사람이 모두가 여자뿐이라는 것이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졌다. 어쨌든 고기와 술은 다들 맛있게 먹었고, 끊임없이 진행되던 게임도 이제는 술술 지겨워졌다. 남자 선배들은 후배 남자애들과 어깨동무를 하며 하나 둘씩 담배 핀다고 나가버리고 남은 건 나뉘구는 술병과 음식찌꺼기일 뿐.. 남아있던 여자 선배들은 아무 불만도 없이 술병과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언니.. 좀 있다 남자애들 오면 같이 치워요. 우리가 청소하기엔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에이.. 뭐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그냥 빨리 치우고 자야지!”

여고를 나온 나로써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다. 수학여행이나 야영을 가서는 이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거기서도 일을 많이 하는 애들과 노는 애들이 있었지만... 웬지 더 억울한 느낌이다.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초등학교 시절이 생각난다. 초등학교때 청소시간에도 늘 그랬었다. 책상 나르기나 대걸레질 같이 빨리 끝내고 놀 수 있는 것은 꼭 남자애들이 했고, 여자애들은 힘들게 구부리고 바닥 쓸기나 추운 날에도 밖에 있는 수돗가에서 물걸레를 짜는 일. 아예 꾸구리고(?) 앉아서 와스를 칠하는 일을 했었다. 그나마도 남자아이들은 청소를 잘 하지 않고 농땡이를 치고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나 하면서 놀려고 했었다. 맨날 빗자루 들고 쫓아다니면서 청소하라고 했던 것이 생각난다. 남자들은 그 때나 6년이 지난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아직 칠이 들지 않은 것일까...

하지만 나 역시 빨리 치우고 쉬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투덜투덜 대면서도 청소를 했다. 여자애들은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들을 빨리 빨리 알아채고 잘 하는 것 같다. 남자애들도 그러면 일도 빨리 끝나고 서로 덜 피곤할텐데... 아무래도 남자애들은 집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집에 가면 일부러라도 내동생에게 많은 일을 시켜야겠다~

새터 반성문록 내규

새터는 새터가 대학에 들어와 처음으로 접하는 대학 문화이자, 앞으로 대학 생활을 함께 할 사람들을 만나는 장입니다. 따라서 선배들과 동기간 첫 만남의 사색함을 없애고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놀이도 하고, 술도 마시고, 재미난 대화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재밌고 신나야 할 새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학생들은 물론 남학생들도 음란 가요 등으로 대변되는 집단적 성폭력과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에 무방비한 채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새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새터부터 '새터 반성문록 내규'가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내규는 단순한 가해자 처벌이나 단죄를 넘어서 비폭력인 공동체 성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성폭력을 예방함으로써 새터에서 양성이 모두 즐거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틀리지 않는 의문 - 왜 그리 좋아하나!

게임의 법칙

대부분의 게임에서 즐거움의 핵심은 게임 참가자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남녀 사이의 과도한 접촉을 유발하는 게임.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전제하에 서로 친해지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는 명목으로 게임에 자주 이용된다. 하지만 정작 이 게임들의 핵심은 순진한 새내기들이 서로 수줍어하며 예로틱한 장면을 연출할 때의 아름다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성에 대해 엄격한 교육을 받아온 여성들은 신체접촉에 어찌할 바 모르기 심상인데, 이 모습을 놀리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한다.

둘째, 전투, 기함과 같은 군대문화에서 빌려온 게임. 함께 물체 적과 싸우는 과정에서 선후배, 동기간애가 돈독해진다는 명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게임들은 대부분 폭력적이기 때문에 집단간의 반목을 유발시키기 쉽고, 게임 당사자들도 매우 지치게 된다. 특히 강력한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게임참가자들은 주로 남성이 되기 쉽고, 여성들은 응원자, 혹은 보호받는 입장에 있게 된다.

여왕벌 놀이

게임 물: 각각 한 명의 여성을

두고 남성들이 상대편 남성들과 닭싸움을 벌인다. 적진을 파괴하며 상대편의 여성을 먼저 공격하는 팀이 승리한다. 게임의 제목 그대로 여왕벌을 지키기 위해 남성들이 온몸을 다 바쳐 싸우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통해 남성들의 기사도 정신을 보여주지 위한 것인지 아니면 거친 남성들의 육탄전에서 남성미를 한껏 과시할 목적인지 알 수 없는 게임이다.

게임의 재미: 알 수 없다. 여왕벌이 아닌 여성들은 응원만 하고 있어야 하고, 여왕벌이 된 여성은 게임 내내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한다. 남성들 역시 육탄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갖가지 위험한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즐거워하는 것 같지 않다. 이긴 후 승리감이라도 도취할 수 있는 사람은 단순해서 행복한 사방일 수도.

김밥말이

게임 물: 남녀가 섞여

서 가지런히 눕는다. 김밥 말 듯이 한 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을 향해 멤버들 위로 굴러 간다. 이것을 연속적으로 진행하여 다른 경쟁자보다 빨리 종착점에 이르면 이긴다.

게임의 재미: 다른 사람의 체중에 눌리면서 괴로워하는 게임참여자들의 모습이 보는 입장에서는 매우 즐겁다. 때로는 낯선 남녀들이 집단으로 과성을 지르며 서로 엉기는 모습이 아름다운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어쩌면 후자가 핵심일 수도.

강의실

#1 2001. 4. 14

벌써 4월이라 캠퍼스 곳곳마다 봄기운이 완연하다. 신입생 O.T 이후 정신없이 지내는 사이에 한달 하고도 반이 금새 지나가 버리다니.. 매일 밥이다, 술이다 얻어먹고 다니는 동안 선배들, 친구들과 많이 친해졌고 학교 생활에도 제법 익숙해졌다. 하지만 그러고 보면 요즘 너무 들떠서 지내는 것 같기도 하다. 수업시간 외에는 책이론 손에 잡아본 일이 없는데다가 그나마도 졸기가 일쑤고, 아, 그런데 오늘 수업 시간에 뒤통수 뒹구는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5교시였던가? 평소애 농담을 잘하시던 교수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한 마디를 던지셨다.

"요즘 대학생 성문화가 어떤지 신입생들은 아직 잘 모르죠? 어디, 여기 총각 있으면 한번 손들어봐요."

어쩌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튼 이 말에 강의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었다. 빙글빙글 웃으며 장난 삼아 손을 들어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난 수업시간에 할 말 치고는 약간 노골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내가 아직 남자아이들과 함께 있는 자리가 익숙하지가 않은 탓에 괜히 예민해서 그런 것이려니 하면서 넘어갔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별로 그렇지 못했다.

"우리 학교 독수리 상 다들 어디 있는지 알죠? 거기에 얹힌 전설이 하나 있는



데, 그 앞으로 치녀가 지나가면 독수리가 난다고, 들어 봤어요? 하하하.. 근데 어떻게 된건지 내가 이 학교에 십수년째 다니면서 한번도 그 독수리가 난 걸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기 치녀 있으면 일어나 볼래요?

으으~ 이 말을 듣고 나서 어찌나 당황했는지, '치녀가 있으면 일어나 보라'고? 어차피 고지식하게 내가 정말 치녀인지 아닌지를 고백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마치 구경거리로 내던져지거나 한 것 같아서 무지 기분이 나빴다. 가만히 앉아 전설에서 말하는 '치녀가 아닌 여학생' 중 하나가 되거나, 아니면 벌떡 일어나 '주문을 틀고 독수리를 날릴 치녀'가 되거나.. 어느 쪽이건 바보가 되기는 마찬가지다. 게다가 소위 그 '전설'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학교 여학생이 치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비비꼬아서 우스개거리로 만든거잖아? 총각이라는 말과 치녀라는 말이 갖는 무게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피부로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처럼 당황했던 사람이 나 뿐만은 아니었던지 옆에 앉아있었던 어떤 여학생도 꽤 난처해하는 것 같았다. 라리는 아예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했었고.. 물론 재미있어 죽겠다는 듯이 박장대소를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말이다. 이 말을 하면서 교수님은 어떤 표정을 지었었지? 미처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웬지 기분이 나빠진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Episode 3. 강의실

"...공부를 좀 열심히 해요. 특히 남학생들 땀날 밤새 술 마시고 놀기만 해서 어디 이른 마누라 얻을 수 있겠어요?"

그 때 당시에 난 마치 그 교실에 없었어야 했던 것 같은 기분이었다.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에 뜨끔하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특히 남학생들, 그것도 이른 마누라 얻으려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사실 남자아이들이 더 많이 노는 것 같기는 하다.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외박도 자주 하고, 술도 밤새도록 마시고 말이다. 하지만 과연 그 교수님이 여학생과 남학생을 동등하게 보고 순수하게 남학생들이 분발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했었던 것일지는 잘 모르겠다. 혹시 그때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 중에 교수님이 제자로 생각했던 건 남학생들뿐이었던 것이 아닐까? 췌, 선생님~ 예뻐주세요!! 하면서 따라다니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흥내를 내고 싶은 것은 아니다. 치사하네 정말. 우.. 너무 흥분했다.

하지만 이런 정말 기분이 나빴다. 이른 마누라 얻으려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대학이라는 곳에서마저 '여자는 외모, 남자는 능력'이란 공식이 통용되고 있다니 충격적이었다. 우쭈! 고작 이런 말이나 듣자고 머리 싸매고 공부해서 대학까지 온 게 아닌데. 혹시 그 때 "여학생들 잘생긴 남자 만나서 결혼하





려면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도 함께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불쾌하지는 않았을 까? 휴~ 모를 일이다. 나 혼자 이러는 게 웃기는 것 같기도 하고.

맞다, 그러고 보면 첫 수업 시간에 그 교수님이 이런 말도 했었는데 말야.

"아~ 역시 여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교실이 환하군요. 이번 신입생들은 여학생이 몇 명나 되지? 여학생들은 시집가버리면 다 소용없다고 달가워하지 않는 교수들도 있던데 난 뭐 좋기만 하네. 허허~"

그때 별 생각 없이 그냥 넘겼었지만 돌이켜보니 도대체 여학생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우리가 무슨 불 밝히는 형광등도 아니고, 여학생들을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척 하면서도 은근히 알보는 심사가 깔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마치 느물느물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기분이 나쁘다 하더라도 분위기 때문에, 또는 마땅히 할 말을 찾지 못해서 불쾌한 상황을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다. 더욱이 상대가 교수님을 된다면 아무리 불합리하고 부당한 말이라도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입을 다물어 버릴 수밖에 없다. 가족이나 학점 경쟁이 치열한 판국에 만에 하나라도 일이 크게 벌어진다면 나의 학점은 누가 책임전담 말인가! 갓 입학했을 무렵 한 교수님으로부터 '학교 입장으로선 점점 여학생들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랬다. 난 당연히 기분이 매우 상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일그러진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것뿐이었으니까.

휴~~ 머릿속이 복잡하다. 나만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걸까? 같은 여자로서 라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급한 약속만 없었으면 같이 수업 들었던 라리랑 삼숙이 언니랑 얘기라도 해보는 건데.. 내일이라도 한번 물어봐야겠다.



Episode 3. 강의실

순결 이데올로기

우리 사회에서 '처녀'와 '종교'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다른 사회에서의 달랑 상이하 많은 가치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지 성 경험의 유무뿐만 아니라 지체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도덕성이 상당부분이 '순결'이라는 잣대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유교 질서는 남성의 '종교'라는 상투적으로 내려온 반면, 여성의 '처녀성'에 대해서는 '처녀'라는 비과학적 근거를 들어 간섭하고, 여성의 성생활을 통제하여 질제라는 말을 들어 본적 있었습니까? 근제 해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옳지 못합니다. '처녀'라는 하루 평정한 잣대가 한 개인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여성의 몸을 구속해 내는 절대적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순결'을 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순결'이라는 가치를 너무나 숭상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여성능력 평가

흔히들 세상의 반은 여자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세상의 반이 여자라는 건 한번 생각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 여자 교수님이 전체의 반이나 차지하나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여성은 몇 명이나 되나요? 여성이 대표로 있는 기업이 우리 나라에 몇이나 될까요? 혹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들이 육체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노력도 안하고, 의욕도 상대적으로 남성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을 설명해 낼 수 있는 정당한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펼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인 시험에 100점을 맞아도 여성은 취업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결혼한 여성을 먼저 내쫓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은 자연 세상의 중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그들의 의욕이 부족해서도, 더군다나 그들의 육체적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서도 아닙니다. 지금껏 세상이 그렇게 유지되어 왔고 그 관성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한사람 한사람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여성도 꽃이 아닙니다. 남성능력, 여성능력이라는 식의 공식은 여성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 수식입니다. 오히려 이런 말들은 여성을 사회의 중심부에서 몰아내고 있는 말들이지요. 어떤 당당한 세상의 반을 차지하지 구요. 당당한 반을 요구해요, 이것은 결코 부당하지도, 무리하지도 않은 요구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반드시 이뤄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2 적거리장에 붙어있는 부치지 못한 편지

성차별적 발언을 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방관하시는 교수님들께...

교수님들은 성 차별적인 발언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회사에서 커피 심부름 시키면 어쩔거냐", "여자가 계속 공부해봤자, 교수되기도 힘들텐데, 왜 공부하냐"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교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현실이고, 난 다만 그것을 전달할 뿐이다.' 하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우리 사회가 강한 가부장성을 띠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직장에서 커피 심부름을 하며, 여성이 교수가 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엄연한 현실이고, 교수님들은 이런 현실을 말씀하셨죠. 하지만 왜 늘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건가요? 더 이상 변화되고 발전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건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을 사회를 관찰하는 격려된 한 명의 방관자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현실을 보고, 그것을 관찰해 가르침을 받는 이들에게 알려줄 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자신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들이 '현실이 어쩔다.'고 말씀하시는 현실은 그 자체의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순간 순간이 그런 현실을 만들고 있는 거지요. 교수님들이 '커피심부름'을 운운하면, 그리고, '여자가 공부해봤자'라는 언급을 하면 그것은 듣고 있는 저희에게 하나의 강력한 이겨낼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나는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찬 사회와는 동떨어져 있고, 다만 현실을 살아가게 될 너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노라' 하는 파위의 거짓스러운 가림침을 혐오합니다. 거부합니다. 결국 교수님들도 그런 말들로, 그리고, 교수라는 강력한 권위로 이런 사회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들이 경험하고, 여미 몸에서 깊어 배어버린 가부장성을 현실이라는 근거로 우리에게도 당연시하라고 주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자신들의 그런 행동들이 가부장적 모순과 부당함을 더욱 단단히 다지고, 한층 더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건가요.

현실을 말하기에 앞서 내가 왜 현실을 이야기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될 수 있다면 그런 현실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현실을 바꿔갈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이야기 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사회를 관찰하고, 가림침을 주는 교수라는 직책을 떠나서 현실에 발 딛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말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것들이 더욱 학생들에게 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극에 가서는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현실이 더 이상 현실이 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교수님들의 현명한 '현실적' 판단을 기대합니다.

3431

우리 함께 하자구요~~!!

여학생이라면 한 번쯤 수업시간에 평년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무엇인가 불편하고 불쾌하면서도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혹은 할 수 없어서 더욱 힘들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선배들이 흔히 말하는 '성적 압박주의'란 말로 이런 느낌들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보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익숙해지기 위해 나름대로 꽤나 노력 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고들은 단지 근본적인 문제를 감추기 위한, 정해진 현실에 맞춰가기 위한 '눈 가리기'에 불과합니다. 교수님들에 의해 행해지는 불쾌한 발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당당히 맞서 싸우기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냥 '좋은게 좋은거다' 식으로 자신을 맞춰가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수그리고 지내야 하는 걸까요? 언제까지 자신의 불쾌한 느낌들을 끌어 내놓지 못하고 머뭇거리어야 하는 걸까요? 이제 마음껏 자신의 불편함과 불쾌함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교수와 학생사이에는 강력한 벽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학점과 성적이라는 벽이 쳐져있는 거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벽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해낼 수 없었을 꺼라 생각되네요. 불편함과 불쾌함을 이야기하고, 그런 일들을 하신 교수님께 사과를 받고,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싶어도, 내 성적의 전권을 쥐고있는 교수님에 맞서 혼자서 소리를 낸다는 건 어느 정도의 파해가 예상되는 일이지요.

그럼 이제 이 소리들을 모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우리도 큰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혼자서 목소리로 자칫 함께 억눌릴 수 있는 움직임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우리도 강한 힘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 학기 우리학교에도 드디어 '여성폭력 학칙'이 제정된 건 다들 알고 계시겠죠? 이제 자신이 학내에서 경험했던 성적 모욕감, 불쾌함, 불편함들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규제하며 처벌할 수 있게 된 거지요.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조항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학칙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조직체가 구성되지 못하는 등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다음 학기에 구체적인 세부조항이 제정되고, 본격적인 학칙 적용이 실시되면 성폭력의 문제를 공식화하고, 제도화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통로가 더욱 넓어질 수 있겠죠.

자신이 수업시간에 겪은 성적 모욕감, 불쾌함, 불편함들을 주변의 많은 이들과 이야기하세요. 생각을 같이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주변의 여성자치 단체, 총학생회도 있잖아요. 나만 이러는 거였지 라는

생각으로 파해자인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거나 자신의 소리를 묵살해 버리지 마세요. 자신의 생각을 꺼내 이야기하고, 다른

학우들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요. 친구들과 이야기한다면 누가 어떤 수업, 어떤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지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겠죠? 우리들 성적에도 영향을 끼칠리 없구요. 어때요? 괜찮은 방법 아니가요?



화장에 관한 4 가지 이야기

theme

내 나이 열일곱.....나는 화장을 하고 싶다.

매일 거리에 있는 수많은 화장품 가게를 스쳐지나간다. 무슨 놈의 화장품 가게들은 이리도 많은지, 그림의 떡이라 내 눈에만 더 많이 띄는건지 수많은 화장품 가게들이 그 화려함과 휘황찬란함으로 빛난다. 후~ 하지만 그러면 빗하라, 어차피 내겐 그림의 떡인걸..... 앗! 이 붉은색 립스틱은 색깔이 정말 예쁜걸~! 정말 맘에 드는 색이다.....

나는 화장이 하고 싶다. 그 뽀송뽀송한 느낌과 화장을 하고 난 후의 내 모습이 마음에 든다. 그리고 화장을 하는 과정이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재

밋기도 하다. ^^ 그렇지만 내가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어린 여자애라는 이유 하나로 그 모든 것로부터 나는 멀어져야만 한다. 평 대신 달이라고 제대로 된 화장은 못하지만 파우더라도 발라보려 했으나 역시 아침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한 소

나는 지금, 화장이 하고 싶은 거다.

지금은 안 해도 예쁘니까

화장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는 거라면

나중에는 뭐, 안 예쁜 거 가릴려고

어쩔 수없이 화장하는 건가?

화장에 관한 4 가지 이야기

리 들어야만 했다.

그것은 학생이 무슨 화장이냐로 시작해서 이내 내 나이는 아직 화장같은 거 하지 않아도, 그리고 하지 않았을 때 가장(?) 예뻐보임을 강변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대학가면 실컷 할 수 있는 거고 그 때는 하기 싫어도 해야한다고, 지금은 있는 그대로가 가장 예뻐 보일 때니까 화장 같은 거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쁘다고 설득한다.



후~ 나는 지금, 화장이 하고 싶은 거다. 지금은 안 해도 예쁘니까 화장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는 거라면 나중에는 뭐, 안 예쁜 거 가릴려고 어쩔 수없이 화장하는 건가? 그리고 저들의 주장처럼 만약 지금 내 나이가 그렇게 있는 그대로 가장 예뻐 보인다면 그 가장 예뻐 보일 때 약간의 화장은 더 예뻐보이게 만들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지금 나는 당당하게 내가 원하는대로 화장을 하고 이 붉은색 립스틱을 바를 순 없는건가.....?

"저기... 그거 고르신 거예요?"

"아, 아니요..."

예공~ 저 사람, 이걸 사려나 보다. 나도 저 사람만큼 나이가 들어야만 화장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지...? 우스워라~ 화장도 나이라는 허가증이 있어야만 하나보다.

내 나이 스물둘..... 사람들은 나에게 화장을 하라 한다.

"저기... 그거 고르신 거예요?"

"아, 아니요..."

음, 앤 뭘 그렇게 망하니 보고 있는거지, 고등학생처럼 보이는데... 붉은색 립스틱이라... 요즘 들어 화장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다. 내 주변의 인간들은 내가 화장을 하건 말건 왜 그리 관심이 많은지 요즘 들어 유난히 년 왜 화장을 안 하나는데 이제 화장할 때도 됐지 않냐는둥(화장도 시기가 정해져있나 보다... --:) 난리도 아니다.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렇진 않았는데... 2학년이 되면서 한번씩 들리던 소리가 3학년이 되어서도 화장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내가 이상해 보이는지 다들 한마디씩이다. 참 내, 듣기 좋은 소리도 한 두번이지 이젠 정말 스트레스라구! 지금까지도 화장을 안 하는 내가 이상한 건가..? 그치만 사실 난 화장을 하고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드는걸 어쩌라구. 화장 안 하는 것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닌가 보다. 그래, 뭐 화장이 별건가? 하면 뭘 게 아니냐구, 하면!

"언니, 이지 얼마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듯 안 한 듯 한 화장.... 마치
화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만큼
투명하고 자연스러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었던 것이다!

결국 사고 말았다. 붉은색 립스틱.... 뭐, 연젠가 화장을 하게 되면 한번쯤 발라보고 싶은 색깔이긴 했다. 내일은 나도 화장이란 걸 하고 학교에 가야겠다. 그럼 그 지겨운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겠지....

하지만 이런 나의 바램은 바로

화장에 관한 4가지 이야기

와장창 깨지고 말았다.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화장만 하면 더 이상 여러 소리 듣지 않아도 될 꺼라는 나의 기대는 여지없이 깨어지고 그들은 그런걸 다 어디서 알았는지 화장에 관해 모르는게 없었다. 눈 화장은 어떻게 피부색은 어떻게냐니 입술은 무슨 귀잡아 먹었냐는둥 한참동안 떠들어대더니 끝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화장을 해보라는 충고까지 아끼지 않았다. --::

정말 짜증이다! 내가 너무 몰랐던 걸까....? 이제야 알았다. 화장을 할 자유도 하지 않을 자유도 내겐 온전히 없다는 것을.... 화장을 하더라도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듯 안 한 듯 한 화장.... 마치 화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만큼 투명하고 자연스러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었던 것이다!

셋! 어차피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한 화장, 그냥 내가 하고싶어 질 때까지 이대로 살테닷! 화장을 하건 안 하건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어차피 이런저런 소리 들을꺼 마찬가지겠네까.... 세상에 정말 되게 할 일 없는 인간들이 많은가 보다. --;

'피익~'

"아, 아아..."

"어, 죄송합니다...!"

예고예고, 오늘은 일진이 안 좋은 날인 것 같다. 몸조심 해야겠군... 재는 버스 놓칠까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좀 조심하지, 안 그래도 기분이 별문데....

근데 되게 특이한 화장이군! 저렇게 화장하는 사람도 드문데.... 보나마나 재도 주변에서 꽤나 뭐라 해댄 것 같다. 쫓쫓~ 피곤하겠다.... 나도 나중에 화장하게 되면 저렇게 한번 해볼까? 피익~



내 나이 스물 둘.....나의 화장은 인정받지 못한다.

하아하아~ 겨우 땀다... 휴우~ 이 버스는 한번 놓치면 언제 올 줄 모른다니까, 뛰었더니 땀네. 땀 때문에 화장이 지워지면 안 되는데.... 오늘도 역시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군. 흘금흘금, 기웃기웃~ 참내, 내 화장이 그렇게 이상하고 신기한가? 뭐, 하루이를 일도 아니고 신경끄기로 했다. 하긴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건 그나마 양반이지, 양반....

나는 소위 남들이 말하는 '요란한' 화장을 즐긴다. 왜 그럴까. 요.란.하.다.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지 난 여러 가지 색깔과 도구들을 이용해 단순하고 평범하지 않은 화장을 즐길 뿐이다. 나는 화장이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또 내일은 조금씩 다르게 바꾸는 작업들이 늘 즐겁다! ^^ 내가 마치 마술사가 된 기분이다. 해엿~ 사람들이 좋아하는 평범한 화장은 내겐 너무 평범하고 재미없어 보인다. 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화장이 더 예쁘고 더 내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나의 취향은 대가가 요구되는 건가보다. 하루라도 별소리 듣지 않고 그냥 넘어간 적이 별로 없으니 말이다. --:: 게다가 사실 어제 수업시간에는 엄청 짜증스러운 일이 있었다. 그 남자 교수, 정말 밥 맛 없다. 수업

시간에 수업은 안 하고 별별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더니,

"요즘 여학생들, 화장이 너무 요란해. 이건 뭐 학생인지, 어디 나가는 걸지 구분이 안 된다니까.... 그럴 시간 있으면 쪽이라도 한자 더 봐요, 나중에 취직 안 된다고 탄 소리하지 말고 그

**내가 내 생활의 일부로
구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
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는지 모르겠다.
취업하기 힘든 우리 나라 여대생들이
다 화장하느라 공부 못해서
취직 못하나?**

화장에 관한 4가지 이야기

러니까 여학생들 취직이 안 되는 거야~"

하~ 기가 막혀서.... 이젠 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하고 있는데, 급기야는 예상대로 나를 뺀히 쳐다보면서,

"어어, 거기 여학생! 그렇게 화장하면서 공부할 시간은 있나?"

이러는 거다! 굳이 여대생 취업 문제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여성 지원자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노골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내가 내 생활의 일부로 구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 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는지 모르겠다. 취업하기 힘든 우리 나라 여대생들이 다 화장하느라 공부 못해서 취직 못하나? 진짜... 이런 황당하고 멍청한 소리를 수업시간에 들어야 하다니 짜증만 났다. 하긴.... 그 교수만의 문제도 아니지.... 내 주변에 있는 동기 녀석들도 이대 애들이 어찌고 저찌고 떠들어 대는건 마찬가지니까... 저들이나 그 시간에 책이라도 한자 더 봤으면 그런 멍청한 소리들은 안 할텐데. 쫄쫄~

"때구르르르~"

엇, 웬 립스틱? 저 앞에 여자... 아까부터 버스 안에서 화장하느라 바쁘더니 급정거에 립스틱을 놓쳤나보다.

"이거, 립스틱이요..."

"고맙습니다. ^^"

저 사람, 되게 바쁜가 보다. 이 복잡복잡한 버스 안에서 화장이라니.... 뭔진 잘 모르겠지만 저렇게까지 화장을 해야하는 건 괴로울 것 같다. 마음에 드는 화장이 될 리도 없고.... 화장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안타까운 일이다. 헛~



내 나이 스물 일곱.....화장에서 자유롭고 싶다.

오늘도 늦었다! 아침이고 뭐고 일어나기가 무섭게 뛰어나왔는데도 시간이 뻘뻘하게 남았군. 이런 날은 할 수 없이 버스 안에서 화장을 할 수밖에 없다. 덕분에 아침부터 푹팔리는군. 예구예구~ 입사 2년차,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으로 아무리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라고 해도 능수능란함을 자랑하던 내가, 약간 방심한 틈을 타 급정거에 립스틱을 놓치다니..... 자존심에 금이 가는 순간이다. --;

이런 날은 정말 나도 화장하고 싶지 않다. 안 그래도 바빠죽겠는데 화장까지 챙기려면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회사를 다니는 직원에게 있어 화장은 기본. 예의 이기 때문이다. 도대체가 어떻게 화장이 기본예의가 되는지는 도저히 모르겠지만 갖 입사했을 때,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서 여성원들에게 화장은, 회사를 다니는데 있어 매우 기본적인 예의임을 배웠다. 어느 정도 나이 먹은 여자의 맨 얼굴은 예의에 어긋나는 얼굴인가보다. 기가 막힌다!

잠시 이 웃기지도 않은 물에 개겨볼까도 했으나 회사라는 공간이 어디 그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서
여성원들에게 화장은,
회사를 다니는데 있어
매우 기본적인 예의임을 배웠다.
나이 먹은 여자의 맨 얼굴은
예의에 어긋나는 얼굴인가보다.
기가 막힌다!

런가..... 이 사람한테 한소리, 저 사람한테 한소리, 상사한테 찍히고, 제으론 사람으로 찍히고 (나이 든 여성이 화장을 안한 건 얼마나 제으르면 화장도 못하고 나왔을까로 바로 연결된다. 다른 이유같은 건 없다. --; 오죽하면 한 살땀이 애를 든 선배언니도 그 등살을 못 견뎌요

좁은 코박코박(?) 화장하고 나온다.) 그냥 정신없고 바쁘더라도 화장하고 나가는게 속편하다. 나는 사실 화장을 특별히 싫어한다거나 하진 않다. 가끔은 매우 즐기기도 하고 기분에 따라 화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게 화장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요구되는 것까지 기본 좋게 받아들일 만한 넓은 마음 따윈 없다. 물론 화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타인의 시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화장을 하는 가장 1차적인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데로, 나의 모습을 바꿔보는데 있지 예의없는 맨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다!!!

Fat is beautiful!



담 배

2001.5.15

광년

담배는 몸에도 안좋고
냄새도 괴롭잖아?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담배를 피우지.
정말 이해 안되는
미스테리한 일 아니?



과방에서

광년 노마야, 우리 담 주 글쓰기 시간에 발표하기로 한 거
준비해야돼. 근데, 흡연문화라는 주제로 뭘 얘
기하지? 너 뭐 생각나는 거 있어? 난 전혀
모르겠어.



노마 모르겠나니?
광년 음.. 그니깐.. 솔직히 말해서 말
야. 난 흡연 자체도 이해가 안가고, 흡연
문화라는 게 도대체 뭘지 모르겠거든.

노마

케해해~
우리 그렇게 발표해 버릴까?
백해무익한 담배 피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노마 니가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나도 모르겠다.

광년 그치~ 진짜, 담배는 몸에도 안좋고 냄새도 괴롭잖
아? 심지어 담배껍데기에 '흡연은 임산부와 청소년에게 특
히 해롭습니다'라는 글까지 적혀있다구.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담배를 피우지. 정말 이해 안되는 미스테리한 일 아니?

노마 케해해~ 우리 그렇게 발표해 버릴까? 백해무익한 담
배 피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광년 피억~ 지금 --::장난하나? 같은 조라고 하나 있는
게... 으그~ 사람 말 좀 진지하게 들어봐봐. 지금 우리가 말
은 주제는 말야, 아주 개난관에 빠져있다구. 그건 건강에 나
쁘니까 함부로 없애버리자고 하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고, 흡연자의 권리를 존중하자니 비흡연자의 권리가 침해
되고... 결국 안좋은 건 흡연이니까 흡연자 쪽이 양보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또 발표니까 그러면 안되는 아주 어려
운 문제라구.

노마 그럴 때 가장 무난한 방법이 있잖아. 각각의 입장 말
해주고 서로서로 존중해서 잘살자로 결론 내는 거.

광년 역시 그 방법밖에 없나.....근데 흡연자의 입장에서
할 말이 뭐가 있어?

노마 사실 없지 뭐. 니 말대로 백해무익 그 자체니까. 저기
누나~

삼숙 왜?

노마 누난 담배 왜 피워요?

삼숙 어:: 갑자기 그렇게 물으면 할 말 없는데...

노마 별 건 아니구요. 지금 우리가 발표준비 하는데 담배를 피우는 흡
연자의 입장을 설명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둘다 비흡연자라 잘 몰라
서리... 도대체 왜 피우는 거예요?



삼숙 그냥.. 뭐, 스트레스도 풀리고... 머리 잘 안돌아갈 때 한 대 피우면 좋고....??? 근데 아까 흡연자의 권리 어쩌구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담배피는 이유는 왜 물어?

노마 그냥 흡연자들이 이해가 안되니까 추상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막엔 말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삼숙 흠.....

노마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했어요. 침에 반방에 들어왔을 때 가장 인상적이던 게 누나들 담배 뿜뿜 피워대던 거였거든요. 사실 인상적이라기보다는 좀 놀랐어요. 아주 평범하게 보이는 여자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게 아주 생소했거든요. 이걸 좀 편견같이서 익숙해지려고 하긴 했는데, 여전히 여자들이 담배피우는 건 싫더라고요. 분명히 여자에게 담배가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거 누나들도 모르는 거 아닐텐데 왜 피우는 걸까... 뭐 이런 거요.

삼숙 담배는 모든 사람한테 해롭지. 폐암은 여자만 걸리는 게 아니거든.

노마 그치만 여자는 애 낳아야 되잖아요. 임신부한테 흡연이 얼마나 나쁜데요. 애가 체격만 작게 나오는 게 아니라 뇌도 작게 나온대요.

광년 장말? 허려... 어찌지... 간접흡연 엄청 하는데... --::

삼숙 허참~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임신, 출산 기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애는 여자 혼자 낳는 게 아니라구. 남자들이 담배피면 여자가 비흡연자라도 아무 소용없어. 담배가 남자정자에 얼마나 치명적인데~

노마 그러면서 담배피우지 마요!!! 나는 담배도 안피우는데 누나 땀에 내 2세 망치기 싫어.



노마

하지만 여자는 임신기간 중에 담배 피면 확실히 안좋은 하잖아요.

삼숙 이노마. 흡연으로 애가 이상해지는 건 그렇게 높은 비율이 아니. 천명 중에 두세명 정도라고.

노마 그 두세명에 안 걸리라는 보장이 어딴어

요~!! 확실히 안걸리려면 안좋은 걸 멀리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삼숙 아, 돌연변이 기형아 출산 비율도 그 정도는 돼.

노마 하지만 여자는 임신기간 중에 담배 피면 확실히 안좋은 하잖아요.

삼숙 물론 임신부들에게 담배는 꼭 권할 만한 건 아니겠지. 근데, 임신도 안한 여자한테 애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담배도 피워선 안된다고 말하는 건 좀 웃기지 않아? 그건 애 낳는 일이 여자의 삶 전체를 구속해도 당연하다는 거랑 같은 말이니, 하기가 우리 사회에서 애 낳는 건 여자라고 인정하는 무슨 똥 같은 걸로 통하던가? 젊은 여자들 담배피면 뭐라 그러면서 할머니들한테는 아무 상관 안하니, 애휴~ 웃기지도 않아.

노마 아니..... 난 그런 의미로 한 말은 아니예요. 그저 선배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삼숙 고마워. 하지만 딸아, 있을 지도 모를 미래의 내 애 걱정까진 안

삼숙



해줘도 괜찮아. 네 주변에 애 낳을 생각 있는 남자 흡연자들이나 쟁겨주든지.

(갑자기 라리가 과방문을 박차며 들어온다.)

라리 ○○○○○○○○○!!!!!! 열받아!!!!!! 개자식들!!!!!!

사람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리 글썽, 방금 수업 끝나구 친구들이랑 밖에서 담배 피고 있는데, 옆에 있던 어떤 놈이 지 친구들한테 "재래들 사진 찍어서 부모들한테 다 돌려야 하는데" 이러는 거야!! 그것도 우리 할금할금 쳐다보면서 말아!!!! 정말 재수 없어서~ 지들도 담배 태우면서 그제 할 소리야???

평년이 아~ 진정해.

라리-짜증나, 짜증나, 짜증나~~~~~!!!!!!

노마 아직 그런 사람들이 있냐? 참 안됐다. 일진이 안좋네.

라리 정말이지 그나마 편히 쉴 수 있는 게 학근데, 진짜 짜증나. 안그래도 밖에서 편히 담배물고 있는 남자들 보면 배알이 풀리는데, 우씨~

노마 너도 피~ 너 스스로 당당하면 숨길 필요 없잖아. 그러지 못할 거면 차라리 안피는게 낫지.

라리 야, 이노마! 너라면 쉴 수 있겠냐? 화장실계 시판에 보니까 버스정류장에서 담배피는데 지나가는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이 막 욕하면서 헐박까지 하더라는 글도 있던데, 겁나서 어떻게 피냐?

노마 그러면 끊으면 되잖아~

라리 야, 그런 것 때문에 담배를 피지 말라구?



여자는 담배 피지 말라는 소리잖아!!

노마 세상이 그렇다는 거지, 왜 나한테 화내~ 그리고 넌 맞설 용기도 없다며?

라리 담배 피려면 투사라도 되어 된다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다. 담배피는 여자한테 함부로 대하는 인간들 대부분 남잔데, 압도적으로 힘이 센 남자들한테 무슨 일 당할 줄 알고 투사가 되라는 거야?! 결국 힘없으면 굴으라는 거잖아?

평년 애들아 그만 해. 라리아, 진정해. 참어.

노마 그래, 그러면 계속 그렇게 눈치보면서 담배 피. 난 상관 안할테니..

헉~! 정말 분위기 살벌해졌다. 어쩔 줄 모르겠다. 라리 성격도 대단하지만 노마도 참... 저런 식으로 비굴 필은 없는데.

이, 글구 보니 반방에서 금연하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선배가 이런 말을 했었던 게 생각난다. 환기가 잘 안되는 반방에서 담배 피는 건 자기도 싫지만 흡연자들 대부분이 여자라서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렵다고. 여성 흡연자들은 바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편히 알면서 밖으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땐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일을 보니까 다시 생각하게 된다.

분명히 담배피는 남자는 자연스럽지만 담배피는 여자는 왠지 어색하다. 나도 예전엔 담배피는 여자라고 하면 왠지 마담이나 날라리의 이미지를 연상시켰었다. 하지만 대학와서 보니까 아주 평범한 여자들이 담배

라리

담배 피려면 투사라도 되어 된다는 거야?
담배피는 여자한테 함부로 대하는 인간들
대부분 남잔데, 압도적으로 힘이 센 남자들한테
무슨 일 당할 줄 알고 투사가 되라는 거야?!
결국 힘없으면 굴으라는 거잖아?



를 뚫다. 어쩌면 담배라는 건 단순히 기호품이라고만 보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원래 기호품에는 여자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남자가 좋아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지만, 담배는 그런 종류에 속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아닌가? 담배는 원래 남자들한테 여자도 피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가? 그러면 여자들이 눈치보면서 흡연하는 상황이 설명이 되긴 하는데.. 하지만 담배가 무슨 남자속옷도 아니구... 에휴, 머리가 복잡하다.

어쨌거나 라리가 불쌍하다. 담배를 끊지 않는 이상 계속 저런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야 할테니 말이다. 라리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흡연자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내 성격에 숨어서밖에 못필게 편하니까..

그나저나 발표는 어떻게 하지? 담배문제는 단순할 줄 알았는데, 판단미쓰당... 흐그~



저 너머 있는 진실 - 임신과 출산

첫째, 임신과 출산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주요 기능이다.

둘째, 여성들이 제대로 생명탄생의 과정을 훌륭히 이행한다면 결과는 성공적일 것이다.

셋째, 따라서 여성들은 흡연과 기타 등등 아기에게 유해한 모든 것들을 멀리해야 할 것이며 이는 모성을 가진 여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규범이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주요 기능으로 가진 생물로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여성에게는 다른 사회적 삶이 없나요?

여성의 제 1임무는 출산의 의무이므로 이를 위해서 여성들은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포기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은 없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 비용은 여성이 가정을 지킴으로써 줄일 수 있는 것이므로 여성들은 임신하면 사회활동을 접는 게 좋다. 그것이 바로 국가와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길인 것이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훌륭히 자라난 2세대들과 사회에서 성공한 남편이 당신을 지켜줌으로써 그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싫어요, 저도 직장도 다니고 싶고,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요!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이유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태될 수밖에 없다.

—>..... 그런 생물학적 이유는 당신들이 강요한 거잖아!!!!!!!



성적농담

#1 책팅사건

“광년님이 입장하셨습니다.”

광년: 모두들 안녕! 늦어서 미안해!

노마: 광년아. 반가워!

뽀꾸: 광년아. 너도 개라!

광년: 뽀꾸!!!

진구: 이미지 좀 하고 있거든.

광년: 어떻게 하는거??

노마: 우와! 우리 중에서 누가 질문을 만드는 거야 가장. 우리반 애들중에서

뽀꾸한테 웃힐 것 같은 사람은? 이런 질문을 내면, 연상되는 사람을 찍는거야.

뽀꾸: 중요한 건, 문제를 잘 내야지. 재미있고 신기한 질문을 내야 계승이 즐거워지니까.

광년: 음. 재미있을 것도 같은. 나도 할 테니까. 시범 좀 보여줘.

진구: 내가 문제 낼 차례였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음.

우리반 애들 중에서, 영화 “화성침공”에 나오는 외계인이 미남/미녀라고 볼 것 같은 사람은?

노마: 흑! 유영미? 게 이마가 상당히 넓잖아 그 외계의 같아.

진구: 아. 아. 유미랑 사귀는 남수는 맨날 과방에서 영미 이마 만지던데. 흑~~~~시~~~?

우리 둘래 개네들끼리 이마로 사랑을 나눴던 게 아닐까? ~

노마: 그럼. 외계인들은 이마가 상당히 커??? 이거 몰라 웃고있네! 무하하하!

뽀꾸: 아. 그럼. 이마를 치는 건 성폭력이었다~~~~

노마: 박치기로 유명한 감람은 그럼 뭐야??

뽀꾸: 강간이네!

진구: 오오오. 뽀꾸, 19세 올랐네!

노마: 히히히. 재미있네! 광년아. 너도 재미있지?

광년: ...

노마: 광년에 순진한 척 하기는. 원래 다 이려고 노는거야.

진구: 아. 광년이 아직 어려서 성에 대해서 뽀꾸 모르나보다.

뽀꾸: 아. 아. 이제 좀만 지나면. 다 알게 될 거야?

내가 앞으로 많은 걸 알려주도록 하줘.

광년이 울랑울랑 커야할텐데. ~

노마: 이번에는 광년이 문제 내는 거 어때?

광년: 아. 잠깐만. 나 집에서 부르거든. 나가봐야 할 것 같아.

그럼. 나중에.

“광년님이 퇴장하셨습니다.”



광년



노마



뽀꾸



규제

가이드

글쓰기

공역

이미지

관리

시간

신고

도움말

설정

메시지

추방

종료

#2 적거리장 논쟁

고민하다가.....

며칠 전, 통신에서 노마, 친구선배, 비구를 만나 채팅을 했었는데, 그 때 있었던 일이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 채팅에서 이미지게임을 했는데, "우리반 애들중에서 화성침공영화에 나오는 외계인이 미남/미녀라고 볼 것 같은 사람은?"이란 질문에 노마가 ***를 지목했고, 노마는 ***가 외계인처럼 이마가 넓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근데, 그게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외계인들의 이마가 성감대가 되면서, 금기야는 이마를 치는게 성목력이고, 박치기는 강간이라는 식으로 흘러간 것이다. 다들 재밌었지만, 난 그렇지 않았다.

모두들 내가 아직 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려서 그런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아닌 것 같다. 내가 성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농담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거나, 쑥스러워했던 게 아니다. 나는 비구의 농담이 기뻐나왔다. 이마를 치는게 성목력이 되고, 박치기가 강간이 되는 그 농담 말이다. 매일밤 집에 돌아갈 때마다 혹시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면서, 조바심을 내면서 항상 경계하고, 조심조심하게 되는 나로서는, 그 농담들이 즐겁게 들리지 않았고, 그럴 수가 없었다. "내가 만약 성목력을 당하면, 어떡하지?"라는 상상을 하면, 나는 무섭고, 두려운데, 어떻게 가벼운 농담으로 받아들이 수 있는 거지? 비구의 농담들은 성목력과 같은 상황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린 것 같다. 물리적이고, 목력적인 상황은 생략된 채, 웃음거리로만 얘기되면서, 성목력은 희화화되어버렸다. 이런 식의 농담들은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요?

2001. 9.17 광년



광년이 적거리장에 새놓은 글썽 보니, 무척 할당하군. 미더군다나 그 농담들 한 장본인이 내니... 그 농담들 재미있었잖아! 다들 즐거웠하고, 재미있어했는데... 외계인, 이마, 성감대, 박치기...로 유행하러 가면서 나뉘면 농담이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실제적인 성목력을 말한게 아니라,

그날 "외계인"들의 얘기, 위구적인 얘기, 농담이었잖아! 농담가지고, 광년이 너무 민감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광년의 문제제기를 정말 이해할 수 없는걸... 그리고, 채팅할 때, 광년이 너도 재미있어하지 않았냐? 그래, 광년이 아직 성에 관한 얘기를 접해보지 못해서 부끄러워하고, 복스러워하기도 했지만, 광년에도 내심 좋아했던 걸로 아는데...

2001. 9. 17 비구

성적 엄숙주의다!!

현재의 사건(농담)이 광년의 문제제기로 인해 불거져나왔는데, 광년이 농담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농담들이 '성'에 관한 농담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성'은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뱉뱉하게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성에 대한 언술들은 금지되어왔고, 이 언술들은 불결하고, 타락한 것처럼 여겨지며, 더 나아가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성'을 억제하고, 규제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모른다는 이상한 염려들... 이는 '성' 자체가 '천한' 본성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이러한 가정들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것이다. 즉, <'성'='천한/타락한/불결한' 본성>의 도식은, '성'을 조심스럽고, 엄숙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일정한 태도(보수주의/성적엄숙주의)들을 형성시키면서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해왔다. 그 무수한 제재와 검열들... 대표적으로 마광수의 소설 검열시비!!

이러한 맥락에서, 광년이 역시 성적엄숙주의와 보수주의적 태도를 내면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구의 성에 관한 농담들을 농담으로 받아들이 수 없었던 것이다. 광년이 내면화했던 가치인 성적 엄숙주의의 가치는,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없이 성을 농담거리로 이야기하려 했을 때, 거부감을 갖도록 했던 것이다. 내가 채팅상에서 "광년이 아직 어리구나"라고 말했던 것도 광년이 성에 관한 이야기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성적엄숙주의에 빠져있는 광년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광년이 성을 감춰야 할 것,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신을 충분히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랄 따름이다. 나아가, 광년이 성에 대해 자유롭게 뱉뱉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2001. 9.18 revolution(진구)

적거리장의 논쟁을 지켜보면서

이 사건은 명백한 언어적 성폭력 사건입니다!

1. 이 사건은 명백한 언어적 성폭력입니다! : 성별권력관계!

이 사건은 (친구가 말하듯) 성적억속주의도, (빠구가 말하듯) 외계인에 관한 농담도 아닙니다. '이마=성감대'로부터 연속되는 '이마치기=성폭력', '박치기=강간'이라는 농담들은, 현실의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문제를 '우스개꺼리'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농담이라는 외피를 가장하여, 성폭력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과 권력의 문제를 사탕시킴으로써 되면서, 결국에는 '성폭력을 희화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광년이가 지적했듯이, 남성으로서 당신들은 성폭력의 위협을 전혀 느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빠구의 농담들이 즐거울 수 있었겠지만, 일상적으로 성폭력의 위협을 경험하는 여성으로서 광년이는, 그 농담들이 너무나도 현실적인 '가능성'이기 때문에,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채팅상황에서 빠구의 농담들을 듣고 불쾌함을 느꼈던 광년이는 명백한 언어적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입니다!!! 광년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지 않는' 말/행위들을 경험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불쾌감을 유발시켰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무시한 명백한 성폭력입니다.

2. 남성적 시각으로서의 성: 성별권력관계가 작동하는 '성'!!!

친구 당신은 성에 대해 말하면 진보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수적인 이런 구도만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하지만, 당신은 또 다른 구도, 즉 성별 권력관계의 구도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로 든 마광수

의 소설에서 여성은 남성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상'으로 서만 드러나고 있는 걸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죠. 대학내 성문화를 생각 해볼까요? 마초맨, 정력가, 족장가, 아카라카 섹스버전 등등 성에 관한 이야기가 흘러넘치는 마초맨이 우리 버전으로 변강쇠라는 거 알고 있나요? 마초맨, 정력가, 족장가에 등장하는 남성은 '숫구치는 정력의 화신'들이죠. 이렇듯, 과도한 남성성의 강조로 '남성다움=정력=마초=성기'의 동식이 성립됩니다. 이러한 동식은, 남성은 언제 어디서든 얼마든지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으며, 따라서 성적 능력에 있어서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여성은 아카라카 섹스버전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상'으로서만 등장합니다. 혹은 남성의 성적욕망만이 얘기되면서, 여성의 성적욕망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배제됩니다. 결국, 대학내의 '성' 문화는 성적능력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면서, 남성적 시각에서 규정된 성을 재생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단순한 대립은 '성'의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성별권력관계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성' 자체를 신비화시키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3. "성적 억속주의" & "농담 만능주의"는 성별권력관계를 은폐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 "성적억속주의"? -
<성적 불평등의 조건을 무시하는 남성의 언어>

친구는 광년이가 '성적억속주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성에 대해 무



지하고, 말하기 쑥스러워하는 것이 곧 '성적 엄숙주의'는 아닙니다. 오히려 남성과 달리 여성이 처해있는 불평등한 '조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에 대해 남성의 경우, 사춘기이래 음성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추구해왔고, 남성들내의 공통된 문화를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정숙한 여성/음탕한 여성'이라는 가부장적 이중기준은 여성의 성을 전적으로 남성적 시각에서 규정에 왔습니다. 이러한 구분 속에서 대다수 여성들은 이중적으로 억압을 경험합니다. '정숙함'과 '순결'을 강조하는 가운데 성에 대해 무지한 여성상을 받아들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성 자체로부터 소외되거나, 아니면 성에 대한 관심과 욕망을 인정하고 표현함으로써 '까졌다', '창녀', '걸레'라는 낙인을 얻거나, 그러나 둘 다 여성들에게는 곤혹스러운 선택일 뿐입니다. 여성에 대한 이중기준이 엄연히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들에게 '성적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조건을 온폐하면서 남성적

시각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Tip 여기서, 잠깐!

삼척이의 설명을 듣고, "그럼 성에 대해 아무 말 하지 말자는 얘기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참대로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삼척이가 지적했던 가부장적 성문화의 문제점을 짚어냄으로써, '누구나 즐겁고, 유쾌하게 말할 수 있는 성문화'를 구축하는데 그 방향을 설정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할 '공동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광년의) 사례처럼 누군가 불쾌해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과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성문화가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는 현

.....

예를 들어보죠. 신입생 때, 저는 계임을 하다가 걸려서 벌칙을 받을 때, "노래를 못하면, 시집을 못가요, 시집을 못가면, 재미를 못봐요..."라는 노래를 들었죠.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고, 어찌해야 할 지 몰랐죠. 마치 내 몸이 그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서, 기분이 썩 좋지 않았죠. 내가 이런 얘기를 처음 접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했었죠. 하지만, 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익숙해진 지금도 이런 류의 노래는 '어전히' 기분 나쁩니다. '시집을 못가, 재미를 못본다'는

노래는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그닥 유쾌한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여성들은 쑥스럽게, 어떤 여성들은 불쾌하게, 어떤 여성들은 수치스럽게, 어떤 여성들은 분노로 느끼거나, 이런 경험들을 '성적 엄숙주의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성들의 경험을 '남성적 시각'에서 규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특히, 성에 대해 무지하여, 쑥스럽게 느끼는 것을 '성적 엄숙주의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조건을 무시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성에게만 가해져왔던 '가부장적인 이중기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 엄숙주의'는 남성적 시각으로서의 성만을 강요하게 됩니다. '재미'라는 말속에 내포된 '성기중심적인 문화'를 여성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결국, '성적 엄숙주의'는, 가부장적인 성문화속에서 불쾌함을 느낀 여성들로 하여금 그 피해의 경험을 표출할 수 없도록 만들면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조건들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즉, 성별권력관계를 온폐시키고 있는 것이죠.

둘, '농담만능주의'!

빠꾸는 '농담일 뿐', '실제 사회'가 아니라 '외계인'의 허구적인 얘기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농담이라는 걸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농담이면 모두 면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농담도 '종류'에 따라서 용인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죠. 어떤 사건에서의 그 '농담들'은 광년에게 불쾌감과 기분나쁨을 안겨준 이상 더 이상 농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쾌하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이었잖아'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남성만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을 계속해서 강요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농담'이라는 말로 성별권력관계를 온폐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급기야는 '농담'이라고 너무 민감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광년을 '민감하고, 포진한 애로 몰아붙이고 있죠.

4.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곧 "동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 가관인 것은 싸구가 광년에도 '실은' 좋아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한 것입니다. 채팅당시, 광년의 반응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기 맘대로" 규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여성이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해서, 혹은 정말 좋아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묘하고, 이상하고, 불쾌한 감정들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걸 아시나요? 제발, 상대 여성이 그냥 있었다고 해서, "내심/실은" 좋아했을 거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2001. 9.19 삼속

덧붙여: 이번 사건에서 친구, 싸구의 반응들은 언어적 성폭력 사건에서 아주 전형적인 반응들입니다. 우리반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가깝게 지냈던 당신들까지 이렇게 나올 줄이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적거리장의 삼속선배의 글을 통해서, 싸구의 농담들이 왜 정치적으로 울바르지 못했는지 잘 알게 되었다. 성별권력관계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근데, 그 농담들은 정말 아무 생각없이 한 것이었다. 광년이 들으라고(기분 나쁘라고) 일부러 그런 것도 여닌데, 너그러이 봐주면 안되나? 그리고 나는 광년이 적거리장에 썼던 것처럼 이러저러하다고, 채팅할 때 직접 문제제기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랬다면, 왜 불쾌해지는 감이 잘 안왔더라도, 적어도 그런 농담들을 계속하지는 않았을거다. 이 문제 때문에, 요즘 과방분 위기가 엄해져버린 것 같다.

9. 19 노마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들 : 제 2의 가해!!!

노마가 뒤늦게라도 그런 지점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마의 몇가지 반응들은 매우 문제적이라 생각합니다.

1. "아무 생각없이"한 농담이라구요? -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 회피!>

물론, 상대방을 일부러 기분나쁘게 하려고 그런 농담을 한 게 아니라 는 건 누구나 다(광년에도) 알 겁니다. 만일 고의적으로 그랬다면, 그 농담한 사람은 전혀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의도적으로/고의로/일부러' 그런게 아니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잘못을 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게 정석이잖아요.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태도죠. 설마, 당신은 무심코 다른 사람의 발을 밟았을때, '일부러 그런 것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자'라고 말하나요? 일반적으로 '앗, 내가 모르고 밟았네. 아~ 미안해'라고 말하지 않나요?) '미안하다는 사과'가 있다면, 넘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런 사과도 없이 '너그러이 봐달라'라고 말하는 건, 가해행위에 대해 '책임'(사과)을 지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분 나빴던 당사자에게 '불쾌함을 참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 채팅할 때 "직접" 얘기했어야 아니까요? - <피해자 책임론!>

광년이 "차후에" 문제제기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광



년이가 "나중에서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언어적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들의 불쾌함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와 논리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불쾌함'을 드러냈을 때, 피해자는 '민감하고, 포잔한' 애로 낙인찍힙니다.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싸움이 벌어질게 뻔한 상황에서, 즉, 피해가 인정받지 못할게 뻔한 상황에서 "나, 기분 나빴어"라고 밝히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이라도" 자신의 불쾌함을 밝히고, 드러낸 광년이가 얼마나 대단한 용기를 낸 것인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얘기하지 못한 게 아쉬운 일이라면, 광년이 앞으로 그럴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년의 문제제기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이런 경험이 기반이 되어 광년이는 앞으로 '직접'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노마는 <직접 얘기했어야 했다>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그런 농담들을 계속 하지 않았을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건해결 방식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책임을 광년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가 계속된 거고,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삐꾸가 '말한' 농담임에도 불구하고, 즉, 삐꾸가 "가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광년이에게 책임을 묻는 "피해자 책임론" 일 뿐입니다.

3. "분위기"가 엄해졌대구요? -
<사건의 본질 온배>



지금의 엄한 과방 분위기가 광년이 때문인 듯 생각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작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은 '문제적인' 농담을 했던 사람(삐꾸)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문제제기는 '분위기를 깨는, 썰렁하게 만드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러한 반응들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분위기를 꺾었다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에게 전혀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사건의 본질을 은폐시키고, 그 결과 피해자가 문제제기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4. 이러한 반응들은 제2의 가해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마의 문제적인 반응들을 볼 때, 사건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피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건 전혀 생각지 않고, 가해자의 '의도'만 생각하면서 가해자의 발언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오히려 가해행위가 피해자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시키고, 피해자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분위기를 깨는' 엄한 것으로 몰아가면서 사건의 본질을 은폐시키고 있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변인들의 반응들은 가해자가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암묵적으로 동조하게 되는 셈이며, 피해자에게 '매물차다', '너도 한몫했다', '분위기 실벌하게 했다'고 비난하면서, '제2의 가해'를 행하는 것이 됩니다.

9.20 삼속

#1.



2001. 11. 6 am.12:10

오늘도 어김없이 막차다. 애들은 아직도 놀고 있겠지. 정말 중간에 일어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도 한면쫄은 애들이랑 새벽까지 같이 놀고 싶다. 밤에 늦게 들어온다고 구박 하시는 부모님한테도 짜증나고, 나는 당연히 집에 가는 것으로 생각해버리고 자기들끼리만 즐거운 애들도 짜증난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여자애는 아무데에서나 자면 안 된다는 고루한 사고방식을 지니고 계시 우리 엄마. 아빠는 대체 언제쯤이나 그 생각을 버리실까? 한숨만 나온다... 이럴 때면 정말 지막에서 올라온 애들이 너무나 무렵다. 하숙이나 자취를 하면 적어도 귀가시간 때문에 부모님처럼 싸우지는 않을테니...

겨우겨우 막차를 탔다. 어휴... 집에 가려면 한 15분쯤 걸어야 한다. 막차를 타면 이게 안 좋더니... 버스에서 내려서 집을 향해 걷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물이 굶는 다. 누군가? 남작가? 여작가? 뒤를 돌아보고 확인해 보고 싶지만, 혹시 내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뒤에 있는 사람이 더 자신감을 가질지도 모른다. 마음이 조금해 진다. 저 사람이 갑자기 발걸음을 빨리해 날 따라잡으면 어쩌지? 이 길은 골목도 많은데, 날 끌고 골목길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하지? 오늘따라 길에는 아무도 없다. 앞에서 아주 오는 사람이라도 한 명 있으면 훨씬安心이 되는데. 가만있자... 그래, 이 모퉁이만 돌면 슈퍼가 하나 있다. 그 슈퍼는 늦게까지 문을 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발걸음을 재촉한다. 팔려 슈퍼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11. 6. am.12:15

큰일났다. 뒤에서 들리는 발걸음이 빨라졌다. 마음이 너무 조금하다. 날 쫓아오려고 하는게 분명해... 어쩌지? 어쩌지? 아, 슈퍼는 왜 이러 안나오는거야. 휴... 드디어 모퉁이다. 이 모퉁이만 돌면... 앗... 큰일이다. 슈퍼가 오늘따라 문을 일찍 닫아버렸다. 엄마... 어떻게 해... 안되겠다. 뛰어가야겠다. 그런데 앞에서 사람그림자가 보인다. 여자분인 것 같다. 몸뚱이 힘이 꼭 빠진다. 휴.. 다행이다. 저 사람이 있을 동안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2001. 11. 6 am.12:10

어휴... 자식들.. 댜 술을 그리 부어대나.. 완전 말술이야. 말술... 오늘은 아무래도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서 막 잡는 걸 뿌리치고 자리를 떠났다. 어제 집 안 들어가지도 안 들어가면 엄마한테 잔소리쟁나 들을 거다. 어휴.. 추워. 빨리 집에 가서 샤워나 시원하게 하고 자야겠다. 친구놈 하숙집에서 잤더니 온몸이 다 찌부들하다. 어.. 앞에 댜 여자애가 가고 있군. 그런데... 내 발자국 소리를 들었나보다. 몸이 움찔 움찔한다. 머뭇머뭇 거리는 품이 뒤돌아볼 것 같다. 뒤돌아보지.. 내 얼굴만 보면 내가 무서워할 상대가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텐데. 어? 안돌아보네? 갑자기 발걸음을 재게 놀리기 시작했다. 흠.. 내가 무서운가보다. 이런이런.. 나같이 선량한 녀석을 무서워하다니.. 조금 기분나빠지려고 하는걸? 하지만, 그래, 뭐, 밤길에 여자 혼자 걸으려니 무섭기도 하겠지. 그래, 내가 쫓아갈 앞질러서 빨리 가면 내가 자신을 노리는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겠지? 발걸음을 빨리해야겠다. 따라잡아야지.

11. 6. am.12:15

어? 뭐야, 내가 발걸음을 빨리 하니 앞에 있는 여자애가 아예 뛰다. 뛰어. 뭐야, 내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야. 우썬... 내가 지 생각해서 빨리 앞질러주려고 한전데.. 그것도 모르나? 쟤장. 이래서 여자애들은 안된단니까. 뻑뻑 소리나 질려대고 남이 지 신경써주는 것도 모르고. 제기랄. 내가 졸지에 치한 취급 받은거 아냐? 진짜 기분 드럽네... 내가 어딜 봐서 치한으로 보이냐구! 쳇..

#2 2001. 11. 6

삐꾸 야, 어제.. 친구 선배 정말 웃기지 않았나? 우와.. 아무리 술이 취했어도 그렇지. 그게 뭐하는 짓이나, 그게 정말이지 그럴줄 몰랐어.. 왜, 아예 길바닥에 드러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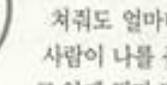
노마 야, 친구 선배도 나름대로 힘들어서 그런거잖아. 어제 얘기 듣고도 모르냐? 넌 자식이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해주냐? 얘기 못들은 것도 아니면서.

광년 어? 무슨 얘기가? 어제 나 간 다음에 또 무슨 얘기 했어?

삐꾸 어? 어... 그냥,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놀았지 뭐... 그냥 그랬어. 근데.. 너 얼굴이 왜 그러냐? 표정이 안좋은데? 야... 혹시 오늘.. 그날이나?

광년 뭐? 내가 그날이건 아니건 무슨 상관인데? 여자는 화내면 꼭 생리하는거냐? 참내, 화도 마음대로 못 낸다는 거야 뭐야... 근데 그런

거야냐, 사실은 어제 집에 가는 길에 넘 무서운 일을 겪었거든. 나 어제에도 막 차타고 갔잖아. 우리 집 가는 길 조금 한적한데 뒤에서 발자국소리가 들리는거야. 몸이 딱 굳더라구. 그런데 그 발자국 소리가 빨라지는 거 있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나도 막 뛰어서 집에 갔잖아. 근데.. 집에 가보니 올 엄마가 정말 구구절절한 편지를 써놓으셨더라. 집에 좀 일찍 들어오라구.



아침에 엄마 얼굴 보기도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거든. 어휴... 짜증나.. 야, 너는 잘 모르겠지? 밤에 혼자 걷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 들리면 얼마나 무서운데.

삐꾸 야, 그 뒤에서 오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었을 텐데.. 너땀에 줄지에 치한 돼버린 거야냐?

광년 그 사람이 아무 생각없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삐꾸 나도 그런 적 있거든. 집에 가는데 앞에 어떤 여자가 날 흘끔 뒤돌아보더니 막 뛰어가는거야. 얼마나 기분 드립던지. 뭐야.. 날 마치 성폭력범으로 보는 거 같잖아. 사실.. 그런 남자 별로 없단

말야. 그건 여자애들 피해망상같아.

광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그렇게 앞에 여자가 가면 발걸음만 조금 늦

춰줘도 얼마나 안심이 되는데. 아, 저 사람이 나를 쫓아오는게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된단 말야.

노마 야, 그럼 너희들 때문에 내가 발걸음을 늦춰서 걸어야 한다는 거야? 나도 밤에는 무섭다구. 그리고 난 절대! 성폭력범이 아니라구. 그리고 그렇게 무서우면 밤이 되기 전에 일찍 들어가면 되잖아.

광년 뭐? 야, 너 그걸 말이라고 해?

삐꾸 왜, 노마가 너 생각해서 한 말인데. 어머니도 그렇지. 사실 여자 혼자 밤늦게 다니는게 위험하긴 하잖아. 어머니나 노마

나 다 위험하니까 그러는 거지. 괜히 너 쫓아버리려고 하는 말인지 아냐?

광년 오오... 그래? 그럼, 낮에 가면 안 위험하니? 위험하기로 치면 우리 나라에서 여자가 안 위험할 때가 어디있어? 심지어 아침에 학교 오면서도 버스안에서 치한을 만나는 판에. 왜, 아예 정말 안전하려면 밤늦게 집에 가지 말고 누구네 집에서 차고 환한 낮에 집에 가라고 하지. 그치만 우리 나라 부모님들이 딸이 남의 집에서 자는거 보여주시니? 그리고, 너희도 그래. 너네 아까도 내가 어제 집에 간 다음에 있었던 일 얘기했잖아. 너네 맨날 하는 얘기가 뭐야? 밤늦게까지 같이 술 마시면서 우정을 돈독히 한다며..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술 자리에서 나누면서 모르는 점도 알게되고 정이 쌓인다며.. 그럼 나는 뭐야? 매일 집에 가야만 하는 나같은 애는 뭐냐구. 나는 너네랑 평생가도 우정 못 쌓겠네? 너네는 우리 반에서 일어나는 이런 저런 일들 다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는 알 기회도 주지 않는거네? 너네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삐꾸 야.. 누가 너보고 우리 사이에 끼지 말래? 그냥.. 너는 그렇겠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다는 거지.. 뭐...

광년 그럼.. 현실이 그러니까 나보고 평생 그냥 이렇게 살아 이거야? 그럼 현실이 바뀌기 전에는 나쁜만 아니라 내 여자 후배들도 다 그냥 그렇게 살겠네? 그럼, 현실은 언제 바뀌는데? 그래, 너는 네 일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너한테 이해를 구한 내가 바보다, 바보야...

Tip

밤늦게 집에 갈 때 이렇게 하면 안전해요!

-목욕탕 타고 갈 경우.

- 함께 가는 사람들이 택시기사의 얼굴을 정확히 쳐다봅니다.
- 앞좌석은 절대 안되고 꼭 뒷좌석에 타도록 합니다. 앞좌석에 타면 택시기사가 가슴이나 다리를 만지려 해도 반항하기 쉽지 않겠조? 앞단은 공격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있는 사람들이 집에 도착하면 꼭 전화 해 라는 인사를 하는게 좋겠조?
- 택시를 타고 친구가 타난 후에는 꼭 택시번호를 기억해두도록 합니다.
- 택시를 탄 사람이 택시번호를 문자로 보내는 것도 좋아요.

-걸어갈 경우.

- 뒤에서 발걸음이 들리면 뒤를 한 번 쳐다보세요. 내가 당신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뒤에서 걷고 계신 당신, 남자분이시라면 발걸음을 조금만 늦춰주세요. 앞에 가는 여자가 정말 안심할 수 있습니다.
- 안심시켜주려고 휘어가는 것은 절대 금물! 오히려 더 무서워요.
- 집 근처에 있는 늦게까지 하는 가게는 하나 정도 알아두는 것이 안전하겠조.

-버스를 탈 경우.

- 두 개의 좌석이 붙어 있는 경우 통로 쪽에 앉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 옆에 앉은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할 경우 몸을 피하기가 쉬우니까요.



#3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

집에 입씩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편지를 받은지 일주일이지났다. 그리고 어제, 또 한 통의 편지가 책상위에 놓여 있었다. 엄마에게 답장을 써야 할 것 같다.

사랑하는 엄마...

어제 저녁 책상 위에 올려놓으신 엄마 편지를 보았습니다. 저 때문에 많이 속상하신 것 같아서.. 저도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밤길 위험한 거.. 저라고 왜 모르겠어요. 제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잠 못 이루는 그 심정 제가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 그래서 제가 집에 입씩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가요?

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네, 저 많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엄마, 엄마도 아시잖아요? 전 낮에도 무서워요. 낮에도 사람 없는 한적한 길에 앞이나 뒤에서 남자가 걸어오면.. 전 무섭습니다. 제 남자 친구들도 말해요. 현실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고, 부모님 걱정하시는데 집에 입씩 들어가라고, 자기들은 술을 마시다가 며칠씩 친구 자취방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말해요. 자기들은 그렇게 어울려 자면서 우정을 돈독히 한다면서 말해요. 전.. 사실 그럴 때마다 소외감을 느껴요. 저만 반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물론 어이없는 말이지요. 밤늦게 술을 마셔야만 친해질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지금 제 친구들은 그렇게 친해지고 있어요.

엄마, 저는요,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전 인정받으면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가끔씩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고 하면, 여성이 차별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면 전 그 사람의 노력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차별받는 사람도 있겠조. 하지만 전 절대 그렇지 않을거라고 생각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대하도 잘 왔고, 제 능력만 있다면 제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을리가 없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이런 저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제가 뭔가 잘못된게 아닐까하고 생각했었어요. 신입생 환영회에서 섞어앉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흑기사를 부르라고 할 때 제가 당황한 이

유는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새내기 배움터를 가서 여자 선배들이랑 같이 설거지를 하고 고기를 굽는 것에 불만을 가진 건 제가 성질이 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업시간에 교수님들이 하시는 농담에 불쾌한 기분을 가지면서도 전 그 이유를 정확히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차츰차츰 알게 되더군요. 답배 피는 여성에 대한 그 이면의 시선들, 네 건강을 위해서야 라는 말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 응답패설을 들었을 때의 나의 불쾌한 감정마저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 규정되고 내가 불쾌한 이유를 규정당하는 상황들, 내가 여성으로서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웃고 즐기는 나의 남자 동기들.

엄마, 엄마도 알고 계시지 않아요? 엄마도 '여성'으로서 태어나 이 사회를 살아오시지 않았나요? 이제는 제 잘못이란 제가 여자로 태어난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밤길에 그렇게 무서워해야 하는거고,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늘 잠은 집에서 자야 하는거고,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 안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엄마, 제가 여자로 태어난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선택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취급을 받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다르게 살고 싶어요.

제 남자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이 땅에서 여자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내가 너희를 잠재적인 성폭행범으로 보기 때문이 아니라도 너희는 나에게 충분히 무서운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그건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는 몰랐었나 봐요. 내가 열심히 하면 바뀔 수 있을거라고 믿었었나봐요. 그리고, 이제서야 저는 엄마가 '엄마'가 아닌 '여성'으로서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의 현실에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면, 그 현실을 바꾸고 싶어요. 나도 마음놓고, 편안하게 지내고 싶거든요.

엄마, 잘 응원해 주실 수 있나요? 엄마의 딸이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도록 옆에서 지원해 주실 수 있나요? 만약, 엄마가 잘 이해해 주신다면, 전 정말이지 그 무엇보다도 큰 힘을 얻을 거예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엄마 딸을 지켜봐 주세요.

사랑해요, 엄마..

11월 13일 엄마의 사랑하는 딸 광영이 드림



스토킹!에 대한 상식 몇가지!

스토킹이란?

전화공세, 집 앞에서 기다리기, 이메일 보내기, 꽃/선물 보내기 등등... 스토킹 행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스토킹 행위유형들의 핵심에는 3가지 원리가 작동합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행위라는 점, 두 번째는 그 행위들이 반복적이라는 점, 세 번째는 이로 인해 스토킹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과 공포 및 혐오감 등 정신적, 혹은 물질적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스토킹은 이 세가지 원리에 기반하여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 스토킹은 "구애"가 아닙니다.

"짝사랑해서 그냥 좀 꽃아다니는 것뿐인데"라는 생각, "일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들이 통용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스토킹 행위를 '구애'의 한 방법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는 명백히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무시한 행위일 뿐, '구애'가 아닙니다. 스토킹을 구애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사회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방관하면서, 동시에 이와 유사한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양산해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나무'로만 바라보는 '구애'의 모델을 버려야만 하



고, 스토킹을 단순한 구애로 치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 스토킹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사건이 공개되었을 때, "피해자의 피해라는 게 도대체 뭐냐?"와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질문 속에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형태만을 피해로 바라볼 수 있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토킹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불안감, 공포감, 위협감, 두려움, 노이로제, 위축감, 무력감" 등등의 정신적 고통들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이러한 정신적 고통들로 인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기 어렵게 되는데, 심지어는 학업중단과 같은 가시적 피해까지 경험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시적 피해가 나타나기 전에, 스토킹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정신적 고통'의 경험을 '심각'하고, '중대'한 것으로 여겨야만 할 것입니다.

셋, 스토킹은 정신이상자라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스토킹을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스토킹은 '정신이상자', '비도덕적인 인간'이라기 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스토킹은 자신의 의사만이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혹은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듯, 스토키는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 결과 반복적으로 가해를 합니다. 상대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스토키는 상대방의 'NO'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전화 걸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NO했다라고, 혹은 내심 좋아하면서 싫은 척하는 것이라고, 또한 스토키는 피해자의 자그마한 행동하나하나까지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밥한끼를 먹은 것도, 눈이 마주친 것도, 자신을 좋아해서라고.

넷, 스토키는 "일상적 관계"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자료에 따르면, 스토키 피해자의 80%는 "아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 '아는 사람들'은 전애인/남편/동거남(27.3%), 데이트 상대(10.5%), 직장/동네 사람/고객이 (16.8%), 교사/강사/친구/동료(7.4%)로 분류됩니다. 이는 각종 매체에서 스토키가 연예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으로 비추는 것과는 달리, 바로 "일상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적 관계"에서의 스토키는 피해자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일상적 관계"의 유지라는 명목으로,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지속적으로 용인될 수 있고, 피해자는 자신의 불행함을 '피해'로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행위가 지겨울 정도로 반복된 이후에서야 자신의 고통을 피해로 인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호~

새내기 여성학 학교가 열린대!

새내기 여성학 학교가 열립니다.

여성학? 페미니즘?

'일핏일핏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게 뭐지?' 하시는 분들.

'여자들만 할 수 있는 건가?' 하시는 분들.

공부해보고 싶은데,, 뭐 공부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
혹은 함께 공부할 사람을 찾는 분들.

이런 새내기를 위해
'새내기 여성학 학교'가 열립니다.

3월 한달동안 매주 한번씩
세미나를 하구요.
매번 세미나마다
바방한 뒤편이는 당근이지요. ...'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주저 말고 학관 3층 총여학생회실 문을 두드리세요.
혹은 2123-3645로 전화하세요.



선답 전 내가 나도 모를 위험성(?)으로 이 일에 뛰어들어 우는 것임이 내 삶과 내 뇌를 잡아 먹는 듯한 느낌으로 살아왔다. 내 행동 하나 하나를 살피며 했다. 몇 번이고, 이 일에서 아나를 살피며 했다. 몇 번이고, 이 일에서 손을 떼고 지금껏 아무런 지고 싶었다. 하지 않음처럼 그렇게 무덤덤하게 지고 싶었다. 한동안 그러지 못했다. 물론 이 일을 할 때 마음과 몸은 늘 지고 싶었다. 내 책임과 자아를 돌보려는 늘 지고 싶었다. 이 자료집을 만들어 제대로 해내지 못했지만 이 자료집을 만들어 가는 순간들은 나에게 있어 도전의 시나리오였다. 때때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고, '난 아름다운 그들'의 세상을 살고 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싶다. 내 삶이 아름다운 그들 중의 하나인 나 자신과 대화를 해 나가며, 이 자료집을 만들어 갔듯이 부끄러우면서도 내 글과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의 글이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되었으면 한다.

바섯

하지만 길었던. 또한 길지만 짧은 자치규약 자료집을 만드는 기간 동안 내가 절실히 느꼈던 것 하나. 어떠한 운동이든, 그 목표는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도 아니고 어떠한 이상향에 도달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 단지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

-sun

이번 자료집은 엄청난(!)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다. 자료집은 항상 누군가와 대화와 소통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이번 자료집만큼은 이전과 달리 '경험을 드러내면서' 말을 꺼내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나는 감이 이번 자료집을 경험할 '공감'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라 말하고 싶다. 대학에 입학한 이후 지금까지 나는 '실득과 논리'를 갖고 살아왔으며, 그래서인지 나에게 그 대상들은 남성이었던 듯하다. 내게 여성은 '경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교육'의 과정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자료집을 만들기 위해 좌중우돌하면서 어쩌어쩌하여 다다른 곳은 '경험의 공간'이라는 것이었고, 이것은 곧 '말하기'의 방식을 고민하게끔 하였다.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주장적이거나 하지 않은가? 때문 나도 그 언어 때문에 혼란에 빠지고 있지 않은가?', '나의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 '교육'에서 비롯된 추상적인 언어들과 '경험'에서 비롯된 구체적인 언어 사이에서, '교육'을 통한 '경험'과 '경험'을 통한 '교육' 사이에서... 그리고, 아직은 찾지 못한 듯하다. 다만 자료집이 나에게 새로운 고민거리를 던져주었을 뿐... 현재의 나는 ing의 나일 뿐이다.

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설득해 가는 과정이었다. 별 문제가 없는 상황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치우쳐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현실을 벗어나 너무 이상적으로 모르는 건 아닌지 등을, 논의를 하느라 내내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야 했고, 그 답을 찾으려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컸던 것 같다. 모든 내가 하고 있는 얘기가 먹여들어 가겠느냐 하는 것이다. 우선은 나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두 가지 종류의 불편함이 있다.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주변 환경 때문에 느껴야 하는 불편함이 한가지이고, 나머지 한가지는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고민하고 행동할 때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중되는 불편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오히려 참고만 있지 않아도 된다는,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그리고 이런 때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가장 힘이 된다는 것도 새삼 깨달았다. 그게 정말 기분 좋은 일이다.

- 난

그게 가능할 거 같고.. 조금 덜 민감해지면 쉽게 세상을 살 수 있을텐데.. 너무 큰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라고.. 나를 설득하던 수많은 말들과 시선들.. 하나 하나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물론 세상엔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제는 말할 수 있단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세상을 규정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에 간여한다는 것을. 함께 갈 친구들이 있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한 나의 꿈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 참 오히려 너무도 정당한 요구라는

지영

이번 작업은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글을 써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는 것은 언제나 신선하고 즐거운 경험이 된다. 언제나 신선하고 즐거운 세상 좀 바꿔주기를 기대하지만 누가 이 답답한 세상 좀 바꿔주기를 기대할 수만은 없다. 눈감고 귀 막고 나름대로 적응하는 법을 찾든지 어떤 식으로든 행동을 하든지...
다다

피어

단순히 재미있었다는 생각에 불꽃 튀어든 나. 물론 재미있기도 했지만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힘들기도 하고, 이런 걸로 뭐가 얼마나 바뀔까... 외의가 돌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도 그만둘 용기조차 없었으니 어쩌어쩌이 끌려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랬던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쳐 왔던 것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처했던 내 모습들이 바보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이 자료집을 통해 뭔가 대단한 걸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 새로 첫발을 디디는 내 후배들이 적어도 나만큼은 바보짓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부디 불편함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미선

드디어 자치규약 자료집 2탄이 나왔다! 98년도에 처음 자치규약 자료집을 내고 매년 버전업해왔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고 힘드셨을 것 같다. 사.; 여전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설득하는 과정이었던 듯 싶다. 살상에 관한 고민들이라는게 꼭 떨어지는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가면서 산을 넘듯 계속해서 부딪히고 설득하고 설득당하는 것만 같음 이번 자치규약 자료집 2탄을 내는 작업으로 도하나 자그마한 사람이라도 남았는지... 이젠 대학이라는 공간에 이미 익숙해진 사람들에겐 한창 설렘을 느끼고 있을 새내기들에게는 양성이 함께 공존하고 즐거울 수 있기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어만

그게 가능할 거 같고.. 조금 덜 민감해지면 쉽게 세상을 살 수 있을텐데.. 너무 큰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라고.. 나를 설득하던 수많은 말들과 시선들.. 하나 하나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물론 세상엔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제는 말할 수 있단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세상을 규정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에 간여한다는 것을. 함께 갈 친구들이 있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한 나의 꿈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 참 오히려 너무도 정당한 요구라는
다다

다다

전주

자치규약 자료집 두번째 이야기

발행일 2001년 2월
만든 곳 일탈기획 (T.2275-8447)
만든 사람들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공동체 Beyond와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이 책을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여러분들과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모든 여성주의자분들께 드립니다.

일탈기획 여러분들과 책을 만들어주신 인쇄노동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